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멘트 산업부문 15년 연속 1위

100년이 지나도 함께
한일시멘트

50년만에
보내는 러브레터

당신께 첫 편지를 띄웁니다.
저의 이름을, 저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늘 저는 당신 가까이에 있었으니까요.
당신이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
당신이 힘들어 기대고 싶을 때나
앉고 싶고, 때로는 눕고 싶을 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을 기억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었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직 당신만 바라보았듯

100년이 지나도 저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일시멘트'입니다.

시멘트

2019 Spring Vol.221

한국시멘트협회
KOREA CEMENT ASSOCIATION

시멘트
C·E·M·E·N·T

2019 www.cement.or.kr
SPRING
Vol. 221

시멘트

2019년 Spring vol.221

08

59

53

CONTENTS

인트로

02 신년사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이현준

06 Opinion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문제점

08 KCA News
2019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산업

10 Industrial Report
[연재] 시멘트산업과 순환자원 재활용③

13 Global Report
해외 시멘트산업 동향

21 Focus
[연재] 시멘트산업과 건설산업의 반세기 동반 성장사⑥

포커스

26 Issue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멘트업계의 의견

사회 & 문화

32 Zoom in
협회 및 회원사의 지역사회 공헌활동

42 Trend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전쟁 · 외교 이야기

뉴스 & 정보

44 Tour
제주 봄여행 코스

48 Life & Health
김대복 박사의 구취 궁금증 퀴즈②

50 Membership News
회원사 동정 및 주요일정

73 Statistics
2017년 시멘트 수급실적

계간 『CEMENT』 통권 제221호 한국시멘트협회
발행인 겸 편집인 이현준 | **발행처** 한국시멘트협회 | **발행소** 서울 강남구 도곡로 1길 14 (역삼동 837-26 삼일플라자 16층)
전 화 02-538-8230 | **팩 스** 02-538-1720 | **문 의** 홍보관리파트 02-538-8237
인터넷 www.cement.or.kr | **디자인** 미래는우리손안에 · 환경미디어(02-358-1700) | **발행일** 2019년 3월 31일

신 년 사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사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바쁘신 중에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업계를 되돌아보면, 큰 폭의 시멘트 수요 감소세 속에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움직임까지 감내하기 어려운 환경정책의 시행과 중복 규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멘트업계가 하나로 똘똘 뭉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공론화하였고,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동안 무상할당 업종으로 선정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시멘트산업의 발전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기꺼이 맡아 주신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과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2019년에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표출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와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고,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

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제 역시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멘트산업 또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면서 시멘트 수요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이은 지역자원시설세 입법화 강행 처리 움직임 외에도 전력비 및 철도임 인상 가능성, 그리고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까지 그야말로 첩첩산중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어떤 어려움이라도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미래를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업계는 시멘트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 자리에서 대내외적인 역경을 이겨내고 또 다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업계가 추진해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멘트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장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멘트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위기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로 인한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도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야만 합니다. 특히 유럽, 일본 등 선진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격차를 실현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우리 시멘트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처럼 우리 업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지 말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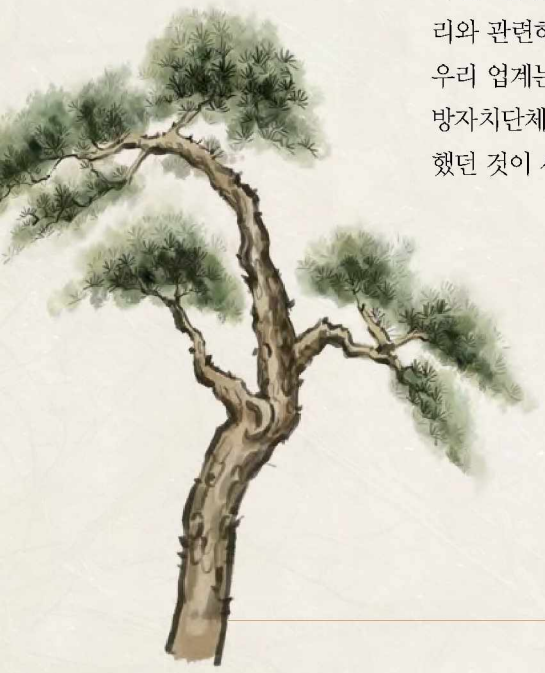
둘째, 업계의 현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며 대응하는 등 보다 강화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많은 개선과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만 산적한 현안 해결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합니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저지를 위해 그동안 축적해 온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체계적인 대응방안 강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및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적기 대응함은 물론 2020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을 앞두고 물류비부담 최소화를 위한 추가 노력도 기울여 나가야만 합니다.

셋째,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선도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시멘트산업은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순환자원의 안전하고 완벽한 처리와 관련하여 국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업계는 그 동안 순환자원 확대 사용에만 주력해온 결과, 정부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및 언론 등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미래의 자원순환사회에서 시멘트산업의 역할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멘트 제조과정에서의 순환자원 사용에 대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계 내에서도 순환자원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기술을 확립하고 관련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시멘트산업의 역할을 스스로 제고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시멘트산업이 국민과 지역사회에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시멘트 종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이사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예로부터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통해 어떤 일이든 성취된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믿음을 갖고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혁신으로 힘차게 도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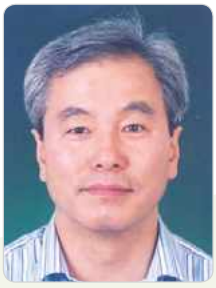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황금돼지가 상징하는 풍요로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10일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이현준**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문제점



이승헌 교수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수도권 집중화와 경기부진으로 지방경제 침체가 심화되자 각 지자체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의 국회의원까지 지역의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강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8년 기준으로 11개의 과세대상에 17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발의된 입법안 중 공업제품으로는 유일하게 시멘트제품이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관련 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수십 년간 국내 시멘트산업을 지켜봐 온 시멘트공학 전문가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시멘트 제품이 과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외부불경제 유발 정도 및 조세부과 타당성 측면의 합리적인 평가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7년 강원연구원은 시멘트 생산으로 인한 전체 외부불경제 규모를 과거 15년간 총 4조8,672억 원, 연간 3,245억 원이라고 산정한 바 있다. 부문별로 정신 · 건강상 피해, 환경적 피해, 경제적 피해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는데, 이를 한국세라믹학회 시멘트부회에서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법원은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이하 분쟁위)의 배상 결정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환경피해를 주장하는 주민과 시멘트 공장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최종 판결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분쟁위 최초 배상 결정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상 피해액을 산출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일방적 주장으로 시멘트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도 인정했듯이 환경적 피해 추정은 산출과정 적용기준이 모호해 계산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배출량 산정방법으로 계산하면 시멘트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허용 배출량의 35~85% 수준이며, 폐기물 소각로를 기준으로 한 편익 추정비용은 강원연구원에서 발표한 추정액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66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과세는 지난 50년 넘게 그 지역을 묵묵히 지켜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시멘트기업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99

시멘트산업이 순환자원을 재활용하면서 일부 환경적 피해를 줄 가능성은 있으나, 강원연구원 추정은 상식을 뛰어넘어 억지에 가까운 주장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

셋째, 경제적 피해를 살펴보면,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 및 완제품의 운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부 도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로 분야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 도로 파손에 따른 피해액은 도로 신설비용이 아니라 보수비용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강원연구원이 주장하는 도로 신설에 따른 비용의 3%에 불과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추정치를 근거로 외부불경제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산출한 것을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아 시멘트업계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움직임은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어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이미 시멘트제품의 원료인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원료인 석회석의 비중이 90%이고 석회석 채굴부터 시작하여 연속된 가공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공산품인 시멘트에 동일한 세목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 공산품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

특히 시멘트제품에 대한 연간 과세금액이 석회석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약 25배나 높다는 점에서 기업활동은 물론 담세능력마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시멘트 생산공정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해 탄소배출권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 부담금까지 부과될 예정이어서 시멘트업계는 이중 삼중의 세금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시멘트제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이유 중 하나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명목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질소산화물 부담금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업활동을 옥죄는 막무가내식 법안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국내 시멘트산업은 지난 3~4년간 국내 주택경기 호황에 힘입어 반짝 활황기를 경험했지만, 지난해 말부터는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전환하였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앞으로의 경영전망 역시 밝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과세는 지난 50년 넘게 그 지역을 묵묵히 지켜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온 시멘트기업의 공멸을 야기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이야말로 지자체, 국회의원, 그리고 시멘트업체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2019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사를 낭독 중인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월 10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은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2018년 한 해, 큰 폭의 수요 감소와 각종 환경정책 대응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업계가 합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믿음을 갖고 새로운 변화와 과감한 혁신으로 힘차게 도전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상호 덕담을 나누며 업계의 당면 과제 극복 및 공동발전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2019년 새출발을 다짐하며 격려하는 시멘트업계 임직원

2019년도 시멘트업계 신년인사회 개최기념 단체사진

시멘트산업과 순환자원 재활용 ③

시멘트산업의 가연성폐기물 이용활성화 방안

글 | 홍수열 소장_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현재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방치·불법폐기물 문제는 심각한 환경현안이 되고 있다. 환경부 전수조사에서는 전국에 약 120만 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적발되지 않았거나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를 감안할 경우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양이 쌓여있을 수 있다. 현재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조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스발생으로 인한 화재, 침출수 유출, 악취발생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방지시설이 없는 곳에서 다량으로 적체된 폐기물에 화재 발생시 대규모 노천소각이 이뤄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유해가스로 인한 주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적체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내부에서 생성된 가스가 원인이 될 수가 있어 화재진압이 쉽지가 않다. 경북 의성지역 쓰레기산 화재사건이나 성주지역 쓰레기산 화재사건을 보면 사업장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규모 불법쓰레기로 인한 화재사건은 후진국형 환경문제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3년 이내에 방치·불법폐기물을 모두 치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년 이내에 방치·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첫째, 처리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가연성폐기물 처리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쌓여있는 폐기물까지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폐기물을 재활용사업장으로 옮겨 쌓아두는 단순한 장소이동식 처리 해프닝이 일어난다.

지난해 12월 3일 화재가 발생한 경북 의성군 단밀면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에 쌓인 쓰레기산 모습

둘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83만 9,000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6,000톤은 오염원인자가 처리하고, 34만3,000톤은 대집행으로 처리하며, 33만 톤의 불법투기 폐기물은 최대한 오염원인자를 밝혀내 처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지만, 오염원인자가 밝혀지더라도 오염원인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결국 공공재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만약 60만 톤의 쓰레기를 행정대집행으로 치워야 한다고 하면, 소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약 1,600억 원, 파쇄·선별 후 시멘트 소성로(이하 킬른, Kiln) 등에 투입한다고 할 경우에 약 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방치·불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가연성폐기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제조시설인 킬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설치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의 가연성폐기물 처리의 난맥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시설은 킬른이다.

시멘트공장의 킬른을 통한 가연성폐기물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킬른 관련 규제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킬른에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기준과 관련하여 발열량 기준은 현행 4,500kcal/kg에서 3,000kcal/kg으로 하향조정하고, 반입가능 폐기물의 확대도 필요하다. 지도점검의 경우에도 현재 폐기물 고형연료 규제개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품질기준 위반 시 바로 처분에 들어가기 보다는 최초 1회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킬른을 통해 처리할 폐기물고형연료를 반입할 경우에는 킬른이 이미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사용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킬른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

시멘트 소성로(킬른)용 가연성폐기물 반입관련 규제 개선사항

보조연료 기준	발열량	– 현행 4,500kcal/kg에서 3,000kcal/kg으로 하향조정 · 폐기물고형연료 '제품'의 발열량 기준은 3,500kcal/kg으로 하면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기준은 4,500kcal/kg으로 하는 것은 합리성 결여 · 법적 기준은 하향조정하되, 업계차원에서 표준등급을 설정하여 품질관리
	반입가능 폐기물	– 사용가능 폐기물 종류 확대 · 폐목재 외 바이오매스 종류 확대(바이오고형연료제품 원료로 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킬른 반입가능, 동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가공폐기물 및 건조물, 커피찌꺼기 등) · 자동차 파쇄잔재물(중금속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 도 점 검	– 보조연료 품질기준 위반 시 1회 위반에 대해 처분이 들어가기 보다는 최초 1회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조치(폐기물고형연료 규제개선 적용)
폐기물고형연료 기준		– 폐기물 처리 허가를 가지고 있는 킬른의 경우 고형연료사용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

해서는 폐기물 발생 및 선별단계, 재활용단계 전 과정 개선이 필요하다. 폐기물 발생 및 선별단계에서 PVC 재질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PVC 폐기물은 분리배출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나아가 PVC 재질 포장재 및 제품에 대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재활용단계에서는 재활용업체에서 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 인프라(분석기기 설치 및 인력 보유) 확충을 통해 경험에 의존하는 주먹구구식 관리가 아니라 축적된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시멘트협회 차원에서 염소폐기물 선별 및 관리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재활용업체 대상 교육,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도 필요하다. 시멘트업계 차원에서는 킬른에 반입되는 보조연료의 품질에 대한 표준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등급별 차등 관

> 66
>
> 킬른을 통해 처리할
> 폐기물고형연료를 반입할 경우에는
> 킬른이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 허가를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 고형연료사용에 따른
> 사용시설 설치 및 정기검사 대상에서
>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 99

리가 필요하다. 시멘트업체별로 자체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만, 산업차원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보라 의원은 폐기물고형연료 품질등급제를 도입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시멘트업계 차원에서도 폐기물고형연료 품질등급제 논의와는 별개로 킬른 반입 보조연료에 대한 자율품질등급제를 도입하여 킬른에 반입되는 보조연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업계의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멘트에 가연성폐기물이 보조연료로 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한 지 벌써 이십 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 초기에 '쓰레기시멘트' 논란으로 도를 넘어선 홍역을 치르면서 국내 시멘트공장의 킬른에 반입하는 폐기물 관리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제 킬른 반입 폐기물 관리기준이 설정되고 난 후 1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이제는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보다 합리적인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해 볼 시점이다. 또한 시멘트업계와 정부의 상생협약 체결도 필요하다.

해외 시멘트산업 동향

International Cement Review

프랑스

스위스

라파즈홀심(LAFARGEHOLCIM)社, '자본 시장의 날' 개최

라파즈홀심(LafargeHolcim)社는 2018년 11월 28일 영국 버밍엄의 벨프리 호텔 앤 리조트(Belfry Hotel and Resort)에서 '자본 시장의 날'을 개최하여 '그룹 성장을 위한 2022 전략'에 대한 전체 개요를 발표했다.

라파즈홀심(LafargeHolcim)社 CEO인 얀 제니쉬(Jan Jenisch)는 "2018년의 성과는 '그룹 성장을 위한 2022 전략' 실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직을 단순화했고, SG&A 저축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사업부의 매각으로 우리는 부채축소를 가속화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정표로 삼아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혼합재와 레미콘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2022 전략'의 목표달성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며, 우리는 모든 가치창출 요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라파즈홀심(LafargeHolcim)社는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항과 함께 개략적으로 전략을 설명했다.

- 성장을 통한 기어 변속
- 단순화 및 성능
- 비전과 사람
- 최대의 성과로 격차 해소
- 재무력
- 미래의 오늘 – 디지털 전환

또한, 라파즈홀심(LafargeHolcim)社는 2018년에 4~6%의 순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EBITDA도 같은 기준으로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에도 세계 시장의 견고한 수요는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9년의 목표는 3~5%의 순매출을 전망하는 반면, EBITDA는 최소 5%에 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레스터셔주 콜빌 인근 바든힐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골재 채석장을 방문할 기회도 가졌다. 라파즈홀심社의 자회사인 애그리게이트 인더스트리즈(Aggregate Industries)社는 2,600만 파운드의 투자를 통해 현재 채석장의 수명을 30년 더 연장하고 있다.

중국

중국, 중국 탄소거래규모 60억 위안에 달해

중국의 7개 시범 탄소거래는 2017년 말 47억 위안에서 10월 말 60억 위안(미화 8억6,390만 달러)으로 상승했다고 생태환경부가 발표했다.

중국의 CO_2 거래제도는 북경, 천안, 상해, 충칭, 선전, 광둥성 및 허베이 성을 포함한다. 이 계획은 2013년에 도입되었으며 시멘트 및 기타 탄소 배출 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작년 말 2억 톤이었던 CO_2 거래가 올해 10월 말까지 총 2.5억 톤이 이뤄져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탄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7년 국가적 제도 시행이 시작되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것과 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

이란, 수출 진출

이란은 지난해 7개월(2018.3.21 ~ 2018.10.22.) 간 전년 동기간 대비 10.2% 증가한 765만톤의 시멘트와 클링커를 수출했다.

이란시멘트협회(Iran's Cement Association) 압돌레자 셰이칸(Abdolreza Sheikhan) 사무총장은 수출물량 중 시멘트가 380만톤을 차지했고, 이 기간 동안 클링커와 시멘트의 수출물량 50% 이상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호라산 에라자비 철도국의 사무총장 모하마드 하디 지야이메르는 약 24만 7천 톤의 시멘트가 7개월 동안 이란의 호라산 에라자비(Khorasan Razavi) 지역에 있는 사락스(Sarakhs) 국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주로 수출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지야이메르는 사락스 국경을 통한 시멘트 수출이 전체물량의 90%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시멘트 소비 18% 감소

아르헨티나 시멘트협회(AFCP)에 따르면 2018년 11월 아르헨티나의 시멘트 소비는 2017년 11월 118만톤에서 17.8% 감소한 97만248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10월 대비 6.7% 감소한 실적이다.

또한, 2018년 11월 시멘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3% 감소한 10,208톤을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의 시멘트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6.6%, 전월 대비 6.5% 감소한 98만226톤을 기록했다. 이 중 97만58톤이 내수 시장 고객에게 전달됐다. 국내 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0톤의 시멘트 수입이 이뤄졌는데, 이는 2017년 11월 16,548톤에서 감소한 실적이다.

2018년 1~11월 동안 아르헨티나 수요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12만톤에서 1,100만톤으로 1.1% 하락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기간 대비 15.2% 감소한 69,926톤을 기록했다. 시멘트 생산은 전년도 1,110만 톤에서 1,100만톤으로 0.9% 감소했다.

영국

영국, 세계시멘트콘크리트협회(GCCA) 첫 심포지엄 개최

세계시멘트콘크리트협회(Global Cement and Concrete Association, GCCA) 관계자들은 2018년 11월 23일 영국 런던 코린티아호텔에서 첫 연차총회(AGM)와 심포지엄을 위해 만났다. 주요 CEO들과 지속가능성, 물류, 전략 및 공동처리 관련 관리자,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협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은 GCCA의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GCCA 회장 앨버트 매니폴드(Albert Manifold)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섯 가지 목표가 수립되어 협회 업무 프로그램의 기초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GCCA의 목표들은 시멘트산업과 건설산업 모두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활용될 것이고, 이러한 지속가능한 목표들은 목표달성의 핵심이 될 건설과 혁신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또한, 전체 가치체인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의 원칙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GCCA의 핵심 목표는 시멘트를 선택 가능한 건축자재로 만드는 것이며, 협회 회원들이 지속가능성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GCCA

가 지속가능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성, 생산성, 저소음, 내화성 등의 지속가능한 품질을 강조해야 한다"고 매니폴드는 말했다.
벤자민 스포턴(Benjamin Sporton) CEO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회원들의 폭넓은 경험 기반을 활용한 훌륭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GCCA는 전 세계 시멘트 생산능력의 약 35%(32개 회원사와 9개 계열사)에 달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빨리 50%에 도달하는 것이 GCCA의 목표이다.

브라질

브라질, 2018년 1~10월 시멘트 내수 2% 하락

브라질시멘트협회(SNIC)는 2018년 1~10월 시멘트 출하량이 4,42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10월 시멘트 소비량(내수+수입)은 4,440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 감소했다. 협회의 파울로 카밀로 페나 회장는 2017년 10월 매출액이 같은 기간에 비해 5.2% 증가했지만 업종의 감소세를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여전한 화물차주의 파업과 소비자와 투자자 간의 끊임없는 불신으로 인한 시멘트산업의 하락은 올해 악화된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회복세는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페나 회장은 "모든 지표가 2018년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1~2%의 하락으로 한 해를 마감할 것이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새 정부에 대한 자연스러운 낙관론 외에도 브라질 시장에서의 프로젝트 및 부동산 출시 증가로 낙관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루드니(Rudny) 공장 러시아 수출 시작

러시아 남부 지역과 국내 시멘트 수급을 위해 카자흐스탄 코스타나이 주(州) 루드니(Rudny, Kostanay) 지역에 미화 1억 달러 규모의 시멘트공장이 새로 착공됐다고 카자흐스탄 언론이 보도했다. 2018년 말까지 루드니 공장에서 17,200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공장은 현재 19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최대 가동 시 304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했다.
2018년 12월, 공장장인 아르템 마크라소프는 "5일 이내에 첫 제품이 생산될 예정이고, 이미 시멘트 구매자가 우파(Ufa, 러시아)에 도착해 있다. 그들은 약 20~30만 톤의 시멘트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는 공장 생산능력의 50%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총생산량 4% 증가

파키스탄 시멘트협회(All Pakistan Cement Manufacturer Association, APCMA)는 올 회계연도 첫 5개월(2018년 7~11월) 간 파키스탄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총생산량이 전년 같은 기간 생산량인 1,851만3천톤에서 4% 증가한 1,925만3천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11월 시멘트업계 생산량은 389만9천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감소했다. (2017년 11월 생산량 394만1천톤)

지역별 분석에 따르면 북부 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287만1천톤으로 전년 생산량 324만5천톤에서 11.5%가 감소했다. 이 지역의 2018년 11월 시멘트 생산량은 263만2천톤으로 전년 동월 296만7천톤에서 감소했고, 수출량도 27만8천톤에서 23만9천톤으로 감소했다.

남부 지역 시멘트 생산량은 2017년 11월 69만6천톤에서 2018년 11월 102만 9천톤으로 증가했다. 이 지역의 생산량은 62만6천톤에서 70만5천톤으로 12.6% 증가했고 수출은 2017년 11월 7만톤에서 32만4천톤까지 급증했다.

인도

인도, 시멘트 수요 7~8% 증가

평가 기관인 ICRA는 인도의 시멘트 수요가 주로 농촌 및 저렴한 주택 사업과 도로, 관개 및 지하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9년은 회계연도 기준 7%, 20년은 회계연도 기준 약 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 ICRA는 시멘트 공급량이 연간 약 1,500~1,800만톤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ICRA는 "2019~2020년은 회계연도 기준 7~8%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설비 용량의 초과 문제로 인해 2020년에는 회계연도 기준 약 70% 정도의 가동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마진에 대한 압력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급량보다 더 많은 약 2,200~2,600만톤의 수요가 있었지만, 가동률은 적당한 수준이었으며, 19년은 회계연도 기준 67%, 20년은 회계연도 기준 70% 수준으로 가동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베트남, 2018년 수출 증가

베트남 시멘트협회(VNCA)는 2018년 시멘트 수출량이 전년 대비 55% 증가한 3,165만톤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 분야 수출액 중 가장 높은 수치로서, 미화 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응우옌 꽝 챙(Nguyen Quang Cung) 베트남 시멘트협회장은 베트남 시멘트가 4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었으며, 시멘트 가격은 톤당 평균 미화 50달러, 클링커 가격은 톤당 미화 38~42달러로 2016년 대비 20~23%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 건설부는 2019년 시멘트 생산전망을 내수 6,900만톤, 수출 3,000만 톤인 총 9,900만톤으로 추정했고, 전년 대비 6~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주요 수출 시장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 대만 및 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베트남 시멘트 수출업자들에게 중국 시장으로부터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고 베트남 뉴스가 전했다.

중앙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 수입 증가

2018년 상반기 중 중앙아메리카 최대 수입국인 니카라과는 시멘트 수입에 미화 2,800만 달러를 사용했고, 과테말라도 미화 1,800만 달러를 수입비용으로 지출했다. 중앙아메리카 데이터(Central America Data)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미화 1,200만 달러), 온두라스(미화 7백만 달러), 파나마(미화 6백만 달러), 코스타리카(미화 5백만 달러)는 소규모로 시멘트를 수입했다.
2018년 1~6월, 이 지역의 시멘트 수입은 미화 7,560만 달러에서 미화 7,71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 이 지역 시멘트 수입액의 약 15%는 중국산 시멘트이다. 다른 주요 수입국으로는 멕시코와 베트남(각각의 11%)이 있으며 페루의 수입 점유율은 전체 수입액의 5% 수준이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012년 처음 6개월 동안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은 지난 7년 동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현저하게 증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위스

스위스, 2018년 4분기 시멘트 총 출하량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

스위스 시멘트협회(Cemsuisse)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에서 2018년 4분기 시멘트 총출하량이 2017년 4분기 106만7천톤에서 108만8천톤으로 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8년 총출하량은 2017년 427만2천톤에서 428만9천톤까지 0.2% 상승했다. 수입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지만, 건설산업의 수요 감소로 인해 수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의 약 51.5%가 철도로 공급되었지만, 2018년에는 도로수송 비중이 약간 증가했다.

터키

터키, 터키시멘트제조업협회(TÇMB) 가격 인상 언급

터키시멘트제조업협회(TÇMB)는 시멘트 제품의 40% 가격 인상 언급에 대한 건설계약자연합(iMKON)의 반발에 대해 언급했다. 리맥 홀딩스(Limak Holding)의 의장이자 터키시멘트제조업협회(TÇMB) 회장인 니하트 외즈데미르(Nihat Özdemir)는 "시멘트 제조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40%까지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40%의 가격 인상 소식에 대해 건설계약자연합(iMKON)은 건설공사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설계약자연합(iMKON) 의장인 타히르 텔리오글루(Tahir Tellioğlu)는 "이번 가격 인상이 시행되면 경쟁 당국(Competition Authority)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회원들에게 건설 부문의 공사 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즈데미르(Özdemir) 회장은 2018년 제조비용 상승과 화폐가치 하락으로 낮은 수준에서 가격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상승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자금조달비용에 도미노 효과가 생겼고 시멘트 분야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낮은 출하실적 기록

야마마 시멘트(Yamama Cement)社의 보고에 의하면, 2018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17개 시멘트업체의 총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한 382만 톤(2017년 12월 408만 톤)을 기록했다.

12개의 시멘트업체가 매출 감소를 기록했고, 북부 지방 시멘트업체는 이 기간 동안 51퍼센트의 가장 큰 하락을 기록했다. 시티 시멘트(City Cement)社의 매출은 27% 감소했고, 옌부 시멘트(Yanbu Cement)社와 유나이티드 시멘트(United Cement)社의 매출 역시 26%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시멘트업체는 2018년 12월 23%의 매출 증가를 달성한 헤일 시멘트(Hail Cement)社가 이끄는 추세를 저지했다. 서던 프로빈스 시멘트(Southern Province Cement)社와 야마마 시멘트社는 전년 대비 2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8개 시멘트업체의 12월 수출은 사우디 시멘트(Saudi Cement)社의 9만톤의 수출을 포함한 총 14만8천톤을 기록했으며, 나즈란 시멘트(Najran Cement)社 1만5천톤, 이스턴 프로빈스(Eastern Province)社와 옌부 시멘트社가 각 1만4천톤을 수출했다. 12월 클링커 수출은 옌부 시멘트社 22만8천톤, 알사프와 시멘트(Al-Safwa Cement)社 10만3천톤, 사우디아라비아시멘트(9만5천톤), 북부시멘트(8만2천톤) 등 시멘트 수출보다 많았다.

12월 클링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한 435만톤이었고, 클링커 재고는 전원 대비 19% 증가한 4,234만톤을 기록했다.
한편 사우디 시멘트(Saudi Cement)社 이사회에서 칼리드 빈 압둘라만 살레 알라지(Khalid bin Abdulrahman Saleh Al-Rajhi)와, 무함마드 빈 압둘 카림 알 카리지(Muhammad bin Abdul Karim Al-Khariji)를 회장과 부회장으로 임명했고, 알리 알 카타니(Ali Al-Qahtani)를 타부크 시멘트(Tabuk Cement)社의 총책임자로 임명했다.

멕시코

시멕스(CEMEX)社, 2019년 12~13%의 가격 인상 예상

멕시코 콘크리트협회(Mexican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crete Companies, AMCI)는 2019년 초 시멕스(Cemex)社에서 시멘트 가격을 12~13%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널리스트인 시티바나멕스(Citibanamex)는 "멕시코 콘크리트협회(AMCI)는 2019년 1월 현재 20%의 콘크리트 가격 인상을 발표했고, 콘크리트업체에서는 시멕스(Cemex)社가 시멘트 가격을 약 12%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멕스(Cemex)社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콘크리트의 가격 인상률에 따라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콘크리트업체에서는 벌크 및 포장시멘트 기준으로 가격 인상률이 12%에서 13%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멕시코 콘크리트협회(AMCI) 회장인 에마누엘 가르시아 빌라레알(Emanuel García Villarreal)은 다음 달 고시되는 시멘트 가격과 경유 및 전력의 가격 상승에 따라 콘크리트의 구체적인 가격 상승 폭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시티바나멕스(Citibanamex)는 "2019년 야심 찬 가격 인상 발표를 듣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업계 내 폭넓은 공급과 수요의 완만한 증가를 감안할 경우 시멘트 5%, 레미콘 9%의 가격 인상이 적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멘트산업과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사⑥

철저한 현장주의 정신으로 시멘트와 건설을 사랑한 '정주영'

노동자와 씨름판…온몸으로 소통하며 시대적 사명 다해

글 | 전병수 건설칼럼리스트

건설업과 시멘트 등 자재산업 수직계열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사서 고 정주영(1915~2001년) 회장을 빼놓고서는 성장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차고 넘치는 오늘날과는 달리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태어나 그 부족함을 에너지로 삼아 신화를 이룬 정주영. 조국 근대화라는 시대정신에 발맞춰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을 만들어내며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고단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를 향해 뛰었다.

정주영의 시대와는 달리 지금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시멘트와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할 정도로 현장에는 첨단장비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접목되고 있다. 시멘트와 건설업계는 지금의 시장이 불확실하고 불안하다고 아우성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상대적으로 절실함이 부

1964년 현대시멘트(주)(現 한일현대시멘트(주)) 단양공장 준공 기념식

족하고 시장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다.

정주영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현대건설이라는 건설업체를 모체로 시멘트, 중공업, 자동차, 해운, 콘크리트파일, 타일, 도기 등 산업을 일으켰다. 건설업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산업을 수직계열화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철저한 현장주의자로 모든 일은 반드시 눈으로 확인했다. 거인답게 그는 많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남겼다. 특히 현대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의 전신)와 울산 현대 미포조선소를 건설할 당시 목숨을 걸고 현장을 확인하고 지킨 그의 행보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된다. 시장이 어렵고 불안하기 때문일까. 다시 한번 정주영 이야기를 통해 그의 리더십을 돌아보며 그와 소통해본다.

1962년 단양시멘트 공장 착공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건설수요에 비해 시멘트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다. 건설사들은 시멘트를 제때 구하지 못해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장마철 되기 전이나 동절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부족으로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주영의 현대건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때 정주영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공장을 짓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석회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충북 단양으로 눈을 돌린다.

1957년, 정주영은 시멘트공장 건설계획을 세우고 다음 해에 8,200만 톤 규모의 석회석 광산을 산다. 회사에는 시멘트사업 계획부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신청한 공장건설 계획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는 자체적으로 국내 시멘트 수요를 조사한다. 전후복구사업에 따른 건설 붐으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시멘트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과를 들고 다시 공장설립 신청서를 제출해 기어이 승인을 얻어냈다. 처음 공장설립을 신청한 지 4년 만에 AID 차관 승인이 난 것이다. 1962년 2월의 일이었다. 이어 그해 7월, 정주영은 단양 시멘트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이 공장은 착공 2년만인 1964년에 완공된다.

단양공장 생산 설비

미래 시멘트 수요 정확하게 예측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정주영이 공장설립을 위해 제출한 시장조사 자료 중에서 연간 100만 톤 이상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실제 시장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는 사실이다.

한국시멘트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1957년의 출하실적은 9만5,427톤인데 반해 국내 소비는 28만8,886톤이었다. 나머지 19만3,459톤은 수입 물량으로 충당했다. 단양공장이 준공된 1964년에는 총 119만2,379톤이 출하되며 국내 시멘트 시장이 100만 톤 시대를 맞이하였다. 공장설립 신청서를 냈던 1957년 10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던 국내 시멘트 출하량이 100만 톤을 뛰어넘은 것이다. 만약 공장의 신 · 증설 없이 1957년의 생산능력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로 1964년을 맞았더라면 그의 분석대로 100만 톤 이상 공급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66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단양 시멘트공장 건설 현장에 들러
직접 확인했다.

99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정주영 회장 내외

야간열차에서 몸을 던지다

우여곡절 끝에 단양 시멘트공장 건설이 시작되자 정주영의 일과는 더욱 바빠졌다.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단양 시멘트공장 건설 현장에 들러 직접 확인했다. 주로 주말을 이용했다. 그러다 보니 정주영이 현장에 오는 날에는 근로자들과 감독관 모두가 긴장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호랑이'라는 별칭으로 통했다. 그래서 주말에는 늘 그가 오는 지, 안 오는 지 살피게 된다. 그러다가 그가 현장에 도착하면 "호랑이가 왔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긴박하게 돌아간다. 호통을 치면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현장을 확인하는 그가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

단양 시멘트공장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이었다. 정주영은 그날도 평소의 주말과 마찬가지로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중앙선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포니 정'이라는 별칭으로 잘 알려진 동생 정세영과 함께였다.

야간열차 안에서 두 형제는 깜빡 잠이 들었다. 두 형제가 눈을 떠보니 이미 기차는 삼곡역을 지나쳐 단양역을 출발하고 있었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차는 정상속도로 진입하고 있었다. 정주영은 허둥지둥 눈을 비비며 동생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달리는 열차에서 바로 뛰어내렸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깜짝 놀란 정세영이 난간대를 잡고 큰 소리로 형님을 불렀다. 정주영은 동생을 향해 안전하다는 표시로 손을 흔들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세영은 형님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과연 형님답다는 생각을 하였다. 한밤중 단양에서 벌어진 정주영 형제의 영화와 같은 한 장면이었다.

열차에서 뛰어내린 정주영은 몸을 툭툭 턴 다음 현장을 향해 산길을 걷기 시작했다. 불빛이 있는 도회지와는 달리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은 유난히 어둡다. 더구나 산길은 험하고 위험하기도 하다. 정주영은 밤길을 더듬어 징검다리를 건너고, 계곡을 거슬러 걸었다. 현장까지는 30여 리, 밤길이기 때문에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족히 서너 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다. 정주영은 새벽이 되어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날 현장에서는 모두가 정주영이 오지 않는 줄 알았다. 도착 시간이 지나도록 그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현장 분위기는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정주영이 도착했을 때는 아침 식사시간이었다. 느닷없이 식당 문이 열리고 정주영이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가 나타난 것이다. 느긋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던 직원들과 근로자들은 아연실색했다. 다시 현장에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호랑이표 시멘트 탄생하다

정주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단양 시멘트공장 현장을 방문해 모든 공정을 직접 확인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수시로 현장에 전화를 해서 그날그날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예열실 슬래브 콘크리트는 쳤는가? 밀실 바닥 콘크리트는 마무리했느냐?"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였다. 한 번은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정주영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을 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정주영이 고함을 질렀고 이에 놀란 직원은 그대로 수화기를 놓고 밖으로 도망을 가버린 해프닝도 있었다. 아무튼 정주영이 현장을 떠나면 누군가가 '공습해제!'를 외칠 정도로 그의 현장 확인과 독려는 무섭고도 치밀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단양 시멘트공장은 예정된 공기를 6개월이나 앞당겨 준공됐다. 1964년 6월의 일이었다. 이후 단양 시멘트공장은 1970년 현대시멘트주식회사로 독립하게 된다. 이곳에서 생산된 시멘트가 바로 '호랑이표'시멘트다.

포장시멘트 제품을 바라보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정주영 회장

11월의 겨울바다에서 목숨을 건지다

현장을 챙기는 정주영의 일화는 수도 없이 많다. 그

> 66
> 정주영은 호통만 치는
> 무서운 경영자만은 아니었다.
> 치밀하고 주도면밀했다.
> 또한 누구 못지않게
>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 99

러다 보니 뜻하지 않은 위험에 처한 적도 많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울산의 현대 미포조선소를 건설하던 1973년 11월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2,0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되어 밤낮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른바 돌관공사다. 안벽 매립, 강재 하치장, 선각(船殼) 공장, 본관, 기능공 훈련소 등의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었다. 많은 근로자들이 신발을 신은 채 잠을 잘 정도로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정주영은 숙소에서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새벽 3시에 잠이 깼다. 그는 혼자 차를 운전하며 현장으로 달렸다. 비바람이 워낙 거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늘 익숙한 길인지라 주저 없이 차를 몰았다. 그런데 앞에 난데없이 큰 바위가 나타났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돌렸지만 차와 함께 수심 12미터나 되는 바다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내부로 물이 들어오면서 차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정주영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를 기다려 문을 열었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쪽 문에 등을 대고 온 힘을 다해 밀자 문이 열리면서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밀려드는 물살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겨우 밖으로 나왔다. 수면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백사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사실이었다. 칠흑 같은 밤바다에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안벽을 향해 헤엄을 치기 시작했다. 찬바람과 찬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지만 사력을 다했다. 다행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 박아놓은 철근을 붙잡았다. 경비초소를 향해 고함을 쳤다. 마침 현장을 돌던 경비원이 그의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밧줄을 갖고 와 구조했다. 미포조선소 역시 정주영의 철저한 현장 확인 속에서 완공되었다.

노동자에게 느끼는 끝없는 연대감과 애정

정주영은 호통만 치는 무서운 경영자만은 아니었다. 치밀하고 주도면밀했다. 또한 누구 못지않게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다. 울산에서 조선소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그는 통금해제와 동시에 집을 나서곤 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서서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어느 날 새벽 남대문 시장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한 부부가 손수레를 끌고 있었다. 그날 팔 물건을 싣고 남편이 앞에서 끌고 아내가 뒤에서 밀며 어둠이 채 걷히지도 않은 시장 골목을 나서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이들의 모습에 정주영은 울컥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그들에게 끝없는 존경과 유대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서도 낯모르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것과 같은 연대감과 사랑을 느낀다. 그는 자서전에서 "나는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며, 그들의 단순함과 우직함을 좋아하고, 또 그 순수함을 신뢰한다. 그런 그들과 나 사이에 격의감이 가로놓이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적었다.

기회는 장애물과 함께 오는 법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 사실상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그럼에도 시멘트업계는 여전히 어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출하가 줄고 유연탄 등의 가격이 상승하며 원가부담은 늘어만 간다. 따라서 시멘트 회사들의 이익률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부진한 건설경기는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설상가상 앞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과 같은 낯선 부문에도 지출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래저래 숨 막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모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 또 다른 기회이지 않을까. 4차 산업으로 가는 길목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현장을 아끼고, 현장에 목숨을 걸었던 정주영. 백사장에서 노동자들과 씨름을 하며 온몸으로 소통하고, 노동자들과 어깨동무를 한 채 트로트 한 자락을 뽑아냈던 정주영. '기회라는 것은 좋은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물이나 문제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그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66

'기회라는 것은
좋은 얼굴로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물이나 문제점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더 많아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그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9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바라보는 시멘트업계의 의견

글 | 김창형 부장_쌍용양회공업(주) 물류팀

1. 들어가면서

오는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멘트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멘트 물류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누적되어 온 다양한 문제점을 최저운임으로 강제 해결하려는 발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시멘트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공정한 운임의 결정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안전운임 결정 및 시행 과정에서 화주, 운수사업자, 수송차주 등 운송시장 참여자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먼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도입 경위와 향후 진행 절차, 안전운임제 내용 등을 살펴본 후, 안전운임제에 대해 시멘트업계가 우려하는 점을 짚어보기로 한다.

2. 안전운임제 도입 경과와 향후 진행 절차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08년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사태 이후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 중 하나로 화물연대의 주장을 수용한 이른바 '표준운임제'의 도입 추진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후 2010년에서 2011년에 걸쳐 컨테이너와 철강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그 후 2016년 논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법적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시행을 주장하였으나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법적 강제력을 배제한 참고원가제를 채택하고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반영하였다.

범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표준운임제가 추진된 것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다.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표준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통한 과로 · 과속 · 과적 운행 방지로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8년 3월 30일, 안전운임제로 명칭을 바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7일부로 공포됨으로써 법제화 되었다.

2018년 12월 20일에는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원가 산정을 위한 조사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행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향후 국토부 산하 안전운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원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운임을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 10월말까지 내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함으로써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된다.

3. 안전운임제의 내용

우선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은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다. 시멘트산업은 BCT(Bulk Cement Trailer) 수송용 시멘트제품이 해당된다. 시행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2022년까지 시행효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시행 연장 또는 확대 여부를 다시 논의하게 된다.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두 가지가 동시에 공표되게 되며,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을 정하기 위해 먼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안전운송원가' 조사가 이뤄진다. 안전운송원가와 안전운임 결정 및 조정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세부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안전운임, 즉 안전운송운임과 안전위탁운임이 각각 공표되면 화주는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 이상의 운임을, 운수사업자는 화물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 이상의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만일 화물운송계약 중 안전운임에 못 미치는 금액이 운임으로 책정되면 무효가 되고 안전운임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화주와 운수사업자 그리고 화물차주는 안전운임 지급과 관련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밖에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을 게시 또는 적정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임 위반 사례 신고를 위한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상이 안전운임제의 개략적인 내용이다.

4. 시멘트업계의 우려와 의견

가. 운송시장에 대한 최저가격 강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이미 법제화된 안전운임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제도 필요성이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 안전운임제가 과연 최선의 해결책인가에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비록 교통안전이라는 제도적 명분하에 안전운임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지만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에서 최저가격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들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질서가 기본이지만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정부가 시장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이념적 지향성을 떠나 국가와 정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이 국내 타 재화 및 용역 거래시장과 비교할 때 반드시 최저가격제라는 강력한 수단을 정부가 들이댈 수밖에 없는 시장인지,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시장의 산적한 문제점 해결에 과연 시의적절하고 최선의 방법인가다.

운송시장에서 화물차주들의 적은 수입이 과로·과속·과적으로 이어져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데, 실제 화물차주들 수입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는 정밀한 원가조사를 통해 분석해봐야겠지만, 화물차주의 적은 수입이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단가가 심각하게 낮아서인지 아니면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이나 다단계 운송체제 등 낙후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모순에 더 큰 원인이 있는지 냉정히 생각해 볼 문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되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목적과 수단의 균형은 물론 결과의 공정성과 보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로 인해 위헌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점차 구체화 될 안전운임제의 내용이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화주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되며, 특히 노동계 일부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 그대로 관철되어 화물운송시장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공정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나. 시멘트 운송시장은 실패한 시장인가? 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원가조사가 이뤄져야

이제 초점을 시멘트 운송시장으로 좁혀 보자. 먼저

시멘트업계는 다른 많은 화물운송 분야를 제쳐두고 이번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 왜 시멘트가 선정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전국의 영업용 화물자동차 40만대 중 약 3천여 대에 불과한 시멘트가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지, 시멘트가 다른 화물 운송 분야와 비교해 특별히 운임이 열악하고 과속 · 과적이 심각한 업종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안전운임제 입법과정에서 컨테이너 운송 분야의 심각한 운임 현실이 국회나 언론에 자주 언급된 바 있다. 부산에서 의왕까지 수송하는 컨테이너의 신고운임이 75만 원인데 반해 차주가 실제로 받는 운임은 45만 원으로 신고운임의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컨테이너업계의 운임 수준이나 다단계 실태 등에 관하여 자세히는 모르나, 적어도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주의 지불 운임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추어 절대로 열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시멘트업계는 과거부터 화물차주의 적정 매출액과 수입을 감안하는 한편 운송시장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수송업체와 운임 교섭을 통해 운송계약을 체결 · 운영해 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는 경유가격에 자동 연동되는 운임테이블을 기준으로 구간별 수송여건에 맞게 수송업체와 상호 협의한 합리적 운임을 지불하여 왔다. 이는 저가의 중량화물인 시멘트 특성상 원활한 물류가 영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서 화주가 지불하는 운임의 경쟁력이 수송경쟁력이고 수송경쟁력이 곧 영업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화주인 시멘트업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의 낮은 운임을 나 몰라라 방치하지 않았고 방치할 수도 없다는 의미이다.

시장이 자율성을 상실하여 자원의 배분이나 소득의 분배가 심각하게 왜곡되는 이른바 시장의 실패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적절한 수단과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시멘트 운송시장은 과연 실패한 시장인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장실태조사나 운송원가 조사가 언제 시행된 적이 있었던가? 우선 법으로 시행대상을 정해 놓고 이후에 시장의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정책 추진의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닐까?

이미 법이 시행된 이상 유일한 해결방법은 앞으로 안전운송원가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장의 현실이 제대로 밝혀짐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안전운임이 책정되는 사태를 막는 것뿐이다. 원인과 동떨어진 처방은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키며 왜곡된 운임은 운송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 터무니없이 화물운송 운임이 낮은 수준이라는 인식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안전운임 결정 과정이 화물연대의 부당하고 과도한 요구에 휘둘리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다. 공정한 안전운임은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으로부터

시멘트업계는 공정한 안전운임으로 가는 첫 단추가 공정한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라고 생각한다. 거래 당사자 간 상호 대등한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한 운임 결정은 시작부터 불가능할 것이다.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화주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4명,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멘트업계는 화주 대표와 '운수업체+화물차주' 대표 수가 동일해야 함을 전제로 화물차주 대표 3명, 운수사업자 대표 3명, 그리고 화주 대표 6명(공익

위원은 3명)이 되어야 공정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오히려 화물차주 대표 수와 '화주+운수업체' 대표 수를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화물 운송시장이 노동시장이므로 화주와 운수업체는 사용자이고 화물차주는 노동자로 보는 편향된 시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며 운수업체는 화주 편이라는 주장도 시멘트 운송시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주장이다.

어떤 시장이든 대립되는 구매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바탕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경제의 기본 상식이다. 화물 운송시장도 운임을 지불하고 시장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운임을 받고 수송을 영위하는 수송사와 차주가 서로 상대방이 되는 이치는 다른 시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안전운임위원회는 시장에 맡겨 두었던 가격결정 기능을 공적인 절차에 의해 대신하는 기구라면 공정한 운임의 결정을 위해 운송서비스의 구매자인 시멘트업계와 공급자인 수송업체 · 차주가 동수인 것이 가장 합리적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멘트업계는 정부가 형식적인 3자 동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협의와 조정이 가능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라. 운송시장에 미칠 혼란과 화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해야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시멘트 운송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운송시장의 일반적인 예상대로 다소간의 운임 단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화물차주들의 수입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운송시장의 혼란과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경쟁시장에 최저가격이 도입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수송업체나 화물차주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라짐으로써 시장이 경직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화주의 지불 운임과 최종 차주가 받는 운임이 법적으로 고정되면 수송사가 화주에게 또는 화물차주가 수송업체에게 나름의 경쟁력 있는 운임 제시를 통해 새로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의 경쟁 시스템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

한편 화주와 직접 계약을 맺지 못하고 알선업체를 통해 물량을 받아 운송하는 2차 혹은 3차 업체는 화물차주에 지급해야 하는 안전위탁운임의 제한에 걸려 수익구조가 열악해지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운송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라는 나름의 중간 역할을 분담해 온 2, 3차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인한 역할 축소 내지 부재는 화주 입장에서 운임은 운임대로 더 부담하면서도 화물차 수급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우려가 있다.

화물차주 입장에서도 당장은 운임 단가가 높아지니 운송수입 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장시간 운행의 감소에 따른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장시간 운행과 과로 · 과속 · 과적운행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운임단가가 높아진다고 장시간 운행이나 과로 · 과속 · 과적운행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다. 운임단가가 높아지면 가동시간을 줄여가는 화물차주도 있겠으나 상당수의 화물차주는 종전의 가동시간을 유지하면서 전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임 상승이 반드시 과로 · 과속 · 과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시행의 명분인 도로교통 안전성 제고의 의미는 반감되는 셈이다. 운임 인상이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방

안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높은 운임 수준으로 인하여 차량의 가동률이 일정 수준 줄어들면 동일 물량 수송시 화주와 수송업체는 더 많은 수송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또한 운행여건이 열악한 구간은 전보다 더 운행기피 현상이 심해질 것이므로 화주 입장에서 수송시장의 추가운임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물류비용 부담이 한층 더 커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한 비교적 일정하게 정해진 구간을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달리 각 업체별로 그리고 각 지역과 구간별로 수송여건이 천차만별인 시멘트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과연 획일적인 운임단가 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며, 그것이 시장에 공표되고 강제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어떤 식으로든 결국에는 화주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가 시멘트 수송시장과 화주기업에 미칠 이러한 부작용을 감안할 때 제도시행의 명분과 일부 긍정적 효과는 살리되 그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단일한 운임의 획일적인 강제와 처벌보다는 수송여건에 따른 탄력적인 시행 방안이나 시장의 자율성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5. 맺는 말

우리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하강에 따른 시멘트 수요 감소와 유연탄 등 원 · 연료비용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에 의한 배출권 구매비용 연 230억 원, 질소산화물(NOx) 배출부담금 연 650억 원 및 지역자원시설세 연 530억 원 등 경영환경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외부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물류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멘트업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 속에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안전운임의 결정 과정에서 시멘트업계가 처한 경영상황과 안전운임이 시멘트 제조업체에 미칠 경제적 부담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세심한 배려를 희망한다.

시멘트업계는 기왕에 시행되는 이 제도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 혼란과 갈등이 아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공평한 구성, 공정한 운송원가 조사 및 화주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운임 결정, 제도 시행 후 정부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법 집행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화물운송 시장과 화주기업에 심각한 부작용과 부담을 준다고 판단할 때에는 과감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열려 있는 자세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멘트家 사람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

한국시멘트협회 각 회원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및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록빛 경영 실천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아름답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협회 회원사들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SAMPYO Cement 삼표시멘트

㈜삼표시멘트 동우회, 2018년 연말연시 '사랑의 쌀' 전달

㈜삼표시멘트 동우회는 지난 12월 27일 연말을 맞이하여 100만 원 상당의 쌀을 사직, 오분, 적노, 조비 등 4개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전달했다. 노인회관 관계자는 "몸소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의 이야기는 먼 곳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다"며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삼표시멘트 동우회는 ㈜삼표시멘트 퇴직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사랑의 쌀' 기부 외에도 인재 양성을 위한 향토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 여직원회 '해오름', 설맞이 온정의 손길 전달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여직원회 '해오름'은 지난 1월 29일 민족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쌍용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및 독거노인 등 총 11개 가구를 방문하여 명절 선물 등을 건네며 온정의 손길을 전달했다.

'해오름' 외에도 영월공장 임직원들은 십시일반 정성과 사랑을 모아, 같은 날 쌀과 생필품 등 설명절 선물 및 쌍용지역 중 ·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매, 지역아동 설빔 지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품을 전달했다.

'해오름'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봉사활동 및 물품 지원을 통해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본사 임직원, 사랑의 연탄봉사활동으로 따뜻함 나눠

쌍용양회공업(주) 본사 임직원은 12월 20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을 찾아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취약계층 85가구에 총 5,000장의 연탄과 김장김치 600kg을 전달했다.

연탄봉사활동에는 쌍용양회공업(주) 본사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절기 난방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전달한 연탄과 김장김치는 본사 임직원들의 매달 급여에서 자율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함께한 쌍용양회공업(주) 본사 임직원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 뿌듯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면서, 나눔의 활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본사 봉사동호회, 신생동산 봉사활동 실시

지난 12월 15일 신생동산 보육원에서 쌍용양회공업(주) 본사 봉사동호회의 정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세찬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임직원 동호회원 4명과 그 가족들 11명 및 재능봉사자 1명 등 총 16명의 봉사동호회원들이 금번 봉사에 참여했다.

미용 재능봉사자의 미취학과 초등부 어린이들의 이미용 봉사를 비롯하여, 식당과 주방 청소, 현관문과 각 창문 개소에 방풍 필름 부착,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정화 노력봉사를 성실하게 실시했다.

각 팀별로 분담한 활동작업들을 마친 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해 간 크리스마스 케이크 등 간식들을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대화도 나누면서 친교 시간을 가졌다.

한일시멘트

봉사단 WITH, 수정노인종합복지관 찾아 배식 봉사 진행

한일시멘트㈜ 봉사단 WITH가 지난 12월 8일, 1월 12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독거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 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명의 봉사단원들은 어르신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재료 손질, 배식, 조리실 정리 정돈을 하며 분주하게 일손을 도왔다. 봉사에 참여한 직원은 "어르신들이 고마워하시고, 반겨주셔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일현대시멘트

따뜻한 온기가 더하는 '연탄 나눔'

지난해 12월 8일 강원도 한반도면의 독거어르신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임직원 약 25명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연탄 2,400장(6가구, 가구별 400장)을 한반도면 독거어르신 가구에 직접 나르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러한 한일현대시멘트㈜의 봉사활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진심을 담아 매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매화골 어린이 교실 지원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매포읍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매화골 어린이 교실」에 매월 지원을 약속했다.

매포읍청년회가 주관하는 '매화골 어린이 교실'은 2019년으로 18기째를 맞이하여 매포읍 지역의 6세~13세 어린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의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현대시멘트㈜ 단양공장은 이외에도 차상위 계층 장학지원, 제천단양청풍명월장학회 지원 등 매년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희망나눔실천기업 명패 수상

아세아시멘트㈜는 2월 13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로부터 희망나눔실천기업 명패를 수상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에게 희망나눔실천기업 명패를 증정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는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더욱 나누겠다"고 전했다.

사랑의 헌혈행사

아세아시멘트㈜는 작년 12월 4일 제천공장 내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혈액이 가장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혈액이 필요한 환자를 돕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이번 행사를 포함하여 2018년도에도 총 4회에 걸쳐 단체 헌혈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원 '요한네집' 실내청소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2월 18일 제천 노인요양원인 '요한네집'을 찾아 실내청소를 실시했다. 추위로 인해 닫혀 있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바닥 쓸기와 걸레질, 화장실을 청소했다.

봉사원들을 바라보던 한 어르신은 "반가워요! 또 왔네. 오늘도 수고해주세요"라며 따뜻하게 반기며 맞아주었다. 할머니들의 미소 가득한 모습을 간직하며, 활동을 마친 봉사원들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하루를 즐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우보육원 배수로 작업 및 폐지수거

대전 및 중부공장 직원들은 1월 22일 2019년 첫 번째 봉사활동을 위해 성우보육원을 방문했다. 이날은 먼저 보육원 내 진입로부터 안쪽 건물에 이르기까지 배수로에 쌓여 있던 온갖 이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또한, 창고에 가득 적재되었던 박스, 신문지, 종이 등 각종 폐지들을 수거한 후 뒷정리까지 말끔하게 완료했다.
깨끗하게 정리된 진입로와 창고를 본 보육원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생해준 아세아시멘트㈜ 직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보육원을 위해 꾸준하게 방문해줘서 많이 도와주세요"라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다.

노인요양원 '성락원' 실내청소

적십자봉사회는 1월 23일 영월군 주천면의 노인요양원 '성락원'에서 실내청소 작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아 환기를 자주 못 시켜서인지 내부에 묵은 먼지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이에 창문을 들어내고 창틀사이의 먼지와 찌든 먼지를 제거하고, 걸레로 바닥을 깨끗이 닦아내었다. 또, 이불은 외부로 들고 나가 털어내고, 섬유탈취제를 뿌려주니 향긋한 내음에 마음까지 맑아졌던 하루였다.

안양의 집 보육원 낙엽정리

서울레미콘공장 직원들은 2019년 1월 24일 안양시에 위치한 어린이 보육원 '안양의 집'에서 실외청소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은 가을부터 떨어진 낙엽들이 보육원 이곳저곳을 나뒹굴고 방치되어 있어서 빗자루와 삽을 들고서 마대자루에 담아 낙엽을 정리했다. 건물 전체에 너부러진 낙엽을 마대자루에 20개 이상 퍼 담으니 그제야 온전히 단장된 땅바닥을 마주할 수 있었다.
말끔히 정리된 주변을 보면서 직원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뛰어놀 것을 생각하니 보람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용인공장, 배식 봉사활동

용인공장 및 본사 연구개발팀 직원들은 1월 25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식과 배식판 등 식사 후 뒷정리를 실시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원들은 오전 9시부터 복지관에 도착하여 식사준비를 도와주고, 배식을 맡아 음식을 골고루 나눠주었다. 이번에는 설맞이 행사로 인해 평소보다 이용자가 많아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배식 후 씻고 닦아야 할 그릇의 양도 많았기에 생각보다 힘든 하루였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이날 참석한 한 직원은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날보다 따뜻한 사랑을 간직하고 봉사활동을 마쳤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세아시멘트㈜, 2,000만 원 기부

아세아시멘트㈜는 2019년 1월 21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활동 및 국수나눔터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기부했다. 2012년부터 8년째 매년 2,000만 원을 기탁하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편, 아세아시멘트㈜ 적십자봉사회는 2012년 7월 결성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사회공헌 사업 협약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소년소녀 가장인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4가정에서 6가정에게 '사랑의 집수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제천희망나눔 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국수나눔터'에 참가하여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에 국수제조 지원, 국수 삶기, 설거지 및 식당 청소와 정리정돈 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세아시멘트㈜ 노동조합, 이웃에 쌀 3,200kg 전달

아세아시멘트㈜ 노동조합은 2019년 2월 13일 제천공장 강당에서 충북 제천시 송학면 북부지역 7개 리와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일대 경로당, 제천지체장애인협회 등에 쌀 3,200kg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쌀은 지난달 14일 열린 '제52차 노동조합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축하 화환을 대체한 것으로 정기대의원 대회를 노동조합의 행사로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쌀을 전달하는 선행도 병행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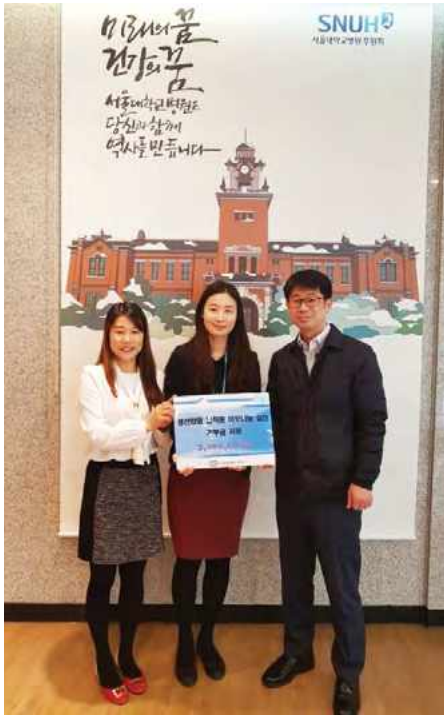
이종각 노조 위원장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상생하는 아세아시멘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행사 후원

지난 12월 6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종로구청에서는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실시된 '1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환경캠페인에 성신양회㈜는 텀블러를 후원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에 앞장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 기부

성신양회㈜는 이웃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직원들이 나서 급여의 소액을 공제하는 '끝전모으기'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2018년 연말 기부 행사에서 서울대 어린이병원, 한베문화교류센터 등 5개 단체에 약 1,100만 원을 기부했다. 성신양회㈜ 이웃나눔실천단은 앞으로도 끝전모으기 운동을 통해 이웃 실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HALLA asia CEMENT 한라시멘트

아동복지 후원금 등 각 처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280여만 원 기부

지난 12월 18일, 포항공장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포항후원회를 방문해 아동복지사업 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다. 본 기부금은 재단을 통해 포항지역 저소득 아동들을 위한 가족위탁지원 및 방과후 교실 등 양육지원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12월 20일에는 임경태 생산본부장 등 옥계공장 직원들이 강릉시청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1,920여만 원을 기탁했으며, 이 성금은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각종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는 삼척시와 광양시에도 각 1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총 2,280여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이 성금들은 모두 지난 11월 진행된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통해 모금된 것으로 임직원들의 모금액에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해 마련됐다. 포항공장팀 최종태 팀장은 "조그만 기부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밀알이 됐으면 한다"며 이웃사랑에 대한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민 · 관 · 공 합동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올무수거 행사' 개최

지난 12월 12일, 옥계공장 임직원들과 원주환경청, 야생동물연합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당사 석회석 광산 복구지 인근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및 올무수거 행사'가 열렸다. 이번 활동에서는 석회석 광산 복구지 인근 야생동물 서식지에 설치된 먹이급이대에 뽕나무 잎과 미네랄 블럭 등을 공급하는 먹이주기 작업과 올무

수거 작업이 함께 진행됐다.
본 활동은 야생동물의 서식지 확보 및 개체 보전을 위해 당사가 2008년부터 11년째 이어 오고 있는 주요 공익환경활동 중 하나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임직원들과 더불어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연합이 민 · 관 · 공 합동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을 높이면서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의미를 살리고 있다.

매포터미널 인근 주민 주택 화재에 특별 성금 전달

2018년 12월 28일, 한라시멘트㈜가 세종시 부강면 소재 매포터미널 인근 주민 주택 화재 복구에 특별 성금을 전달했다. 화재는 전열기 과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발생한 화재로 집이 전소되었다. 피해를 입은 주민은 기초생활수급 대상 독거노인 할머니로 회사와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번 사안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마련했다.
한라시멘트㈜의 특별 성금은 아세아시멘트㈜를 비롯한 관내 기업, 단체들의 성금과 함께 지역 이장단에 전해져 주택 복원 작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해당 사고를 지원하고자 각 처로부터 각종 생필품 기부와 봉사활동 등 후원의 손길이 이어져 왔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후 직접 성금을 전달한 김원국 광양 · 포항 · 인천공장장은 “회사와 임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이 이재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하루 빨리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되찾기 바란다”는 말로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전쟁 · 외교 이야기

글 |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2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매 순간 나라와 민족의 명운을 걸어야 했던 건, 지금의 대한민국이나 1000년 전 고려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렸던 고려시대는 선조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의 이야기는 조선 역사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덜 받는 게 사실입니다. 태조 왕건의 북진정책, 서희의 외교술, 강감찬의 귀주대첩, 공민왕의 반원정책 정도만이 대중들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의 외교와 전쟁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몽골과의 외교에서 국가의 명운을 건 고려왕들, 그리고 거란과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장군들의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고려의 왕, 몽골제국 서열 4위에 오르다

30여 년 동안 몽골에게 9차례 침입을 받은 고려 조정은 몽골에 항복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고종은 태자(훗날 원종)를 몽골의 황제인 몽케 칸에게 보내 항복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태자가 몽골로 가는 도중 몽케 칸은 갑작스레 사망합니다.

이때 태자였던 원종은 국가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하게 됩니다.

몽케 칸의 후계자였던 막냇동생 아리크 부카에게 가지 않고, 중국의 총독으로 머물고 있던 몽케 칸의 넷째 동생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이 넷째는 본래 남송의 정벌을 명령 받았지만,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려다 좌천당해 황위와는 멀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태자가 선택한 이 넷째는, 황위계승 싸움에서 승리해 몽골제국의 다섯 번째 칸이자 원나라의 초대황제가 된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는 고려 태자가 방문하자 "고려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당 태종이 친정하였음에도 굴복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그 세자가 스스로 내게 왔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후 아리크 부카와의 긴 싸움을 끝내고 몽골제국의 칸이 된 쿠빌라이는 "고려가 요구하는 6가지 조건을 전부 허가한다. 몽골의 군대와 다루가치를 모두 철수하며, 고려는 국호와 사직을 보존한다. 또한 의관과 풍속을 몽골식으로 고치지 않아도 좋다"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막내딸 제국대장공주를 원종의 아들에게 결혼까지 시킵니다. 제국대장공주는 칭기즈 칸의 직계혈족인 황금씨족으로, 몽골의 대귀족도 함부로 결혼할 수 없는 황족 중의 황족이었습니다. 실제로 쿠빌라이의 사위 중 몽골인이 아니었던 이는 원종의 아들이 유일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고려 왕의 제국 내 서열은 수직상승합니다. 제국대장공주와 결혼한 충렬왕은, 서열 7위에 오릅니다. 이후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그 손자 테무르가 원 성종으로 즉위하자, 황제의 고모부가 된 충렬왕의 서열은 4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충렬왕과 제국대장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 충선왕은 몽골제국에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하게 다집니다. 후계자가 없던 성종 테무르가 병사하자, 충선왕은 원 황실의 일족인 카이샨과 아유르바리바드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 유력한 후계자는 황후이자 황태후였던 불루칸과 좌승상 아쿠다이가 밀던 안서왕 아난다였습니다. 심지어 충선왕의 아버지인 충렬왕도 아난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인 원종에 이어, 충선왕의 모험도 성공하게 됩니다. 치열한 황위 다툼 끝에 카이샨의 세력이 승리했고, 충선왕은 반대 세력을 직접 숙청하는 일을 맡을 정도로 핵심 세력이 됐습니다.

당시 충선왕이 지지한 카이샨과 아유르바리바드는 각각 원 무종과 인종으로 황위를 잇게 됩니다. 일등 공신이 된 충선왕은 만주의 왕인 심양왕에 봉해졌습니다. 같은 해 아버지 충렬왕으로부터 고려왕까지 물려받아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자가 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시점 충선왕은 고려왕이자, 만주의 왕(심양왕), 황제 옹립 일등공신(추충규의협모좌운공신), 황태자의 스승(태자태부), 개부 의동삼사(대장군이자 제국 최고위 관료) 등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황제 바로 다음 서열인 셈이죠.

교과서에는 몽골의 속국이 돼 80여 년간 간섭을 받은 기록만이 있지만, 당시 고려 왕들은 격동하는 정세에 기민하고 대담하게 대응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 40만 거란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양규

몽골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200여 년 전, 고려는 요하와 만주지역에서 성장한 거란(요나라)과 3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흔히 고려가 거란과의 전쟁에서 항상 승승장구했다고만 알지만, 거란의 2차 침입 때는 멸망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습니다.

1010년 요나라 성종은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은 나주로 도망가면서, 고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집니다.

이때 고려를 구한 이가 양규 장군입니다. 양규 장군은 흥화진(의주)을 지키고 있었는데, 요 성종의 항복 요구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양규는 흥화진에서 저항하면서, 정예 기병 700기를 뽑아 거란군의 보급로였던 곽주를 공격해 거란의 수비군 6,000명을 몰살시키고 탈환합니다. 이 곽주성 탈환은 제2차 고려-거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서경(평양)을 공격하고 있던 거란군은 보급로를 빼앗기자 서경을 오래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요 성종은 서경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직행하지만,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본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크게 활약한 인물이 귀주의 별장 김숙흥 장군입니다. 김숙흥은 귀주 일대에서 거란군을 습격해 거란군 1만2,000명을 죽이고, 고려 백성 3,000명을 구출해냅니다. 이어 김숙흥은 양규와 함께 귀주에서 흥화진까지 가는 길에 거란군을 습격해 고려 백성 수천여 명을 구출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요 성종이 이끄는 거란군 본대와 맞닥뜨리게 되고 고려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거란군과 장렬히 싸우다가 화살 비를 맞고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 양규가 구한 고려 백성들의 숫자는 3만여 명. 양규는 사후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인 공부상서로, 김숙흥은 장군으로 추증됩니다. 양규의 아들 양대춘도 교서랑의 벼슬을 받고 훗날 재상까지 역임하고, 김숙흥의 가족도 고려 조정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서희와 강감찬에 의해 외교·군사적으로 큰 성취를 얻은 1·3차 고려-거란전쟁과 달리, 나라가 멸망할 위기까지 갔던 2차 전쟁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나라와 백성을 구한 양규와 김숙흥은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글 | 김명화 기자_월간 환경미디어

효리네민박 촬영지부터 매화꽃 명소까지

제주 봄여행 코스

너븐숭이 4.3 기념관

너븐숭이 4.3 기념관

효리네민박 손님이 찾은 북촌리는 제주4.3사건을 간직한 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최근 다시 역사의 한 장면인 제주4.3사건에 대해 방송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우리의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한 부분이다. 북촌리는 4.3역사의 모든 것이라고 할 만큼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제주시 조천읍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해변마을로써, 일제 강점기에는 항일운동가가 많았고, 해방 후에는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조직이 활성화됐던 곳이기도 하다. 너븐숭이 4.3 기념관 내에는 전시관, 탐구관, 묵상의 방이 있고, 밖으로는 위령비와 각명비, '순이삼촌비'와 방사탑이 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전시관은 늘 한가한 마을처럼 조용한 곳이다.

갯깍주상절리

제주도 하면 서귀포에 있는 주상절리대가 유명하다. 주상절리 사이로 파도가 맞부딪치면서 몇 미터나 바닷물이 튀어 올라온다. 주상절리 중 으뜸으로 치는 갯깍주상절리가 효리네민박1시즌에 나오기도 해서 유명세를 탔다.

반딧불이 보호구역과 연결되는 해안 주상절리는 1km에 이른다. 조근모살해수욕장과 어울려 몽돌 가득한

해안을 주차장에서 10여 분 걸어가면 주상절리와 함께 다람쥐굴이라 불리는 작은 해식동굴이 있다.
입구부터 아찔한 아치형으로 신비로운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부를 조각하듯 깎여나간 자연의 날 것 그대로인 주상절리의 단면은 제주도의 또 다른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일상적인 제주도 여행보다는 자연을 통한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면 꼭 찾아볼 만한 필수코스이기도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예동에 있다.

노리매공원

1년 중 제주도 노리매 공원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 3월. 3월의 노리매공원은 동백꽃과 함께 매화꽃의 아름다움으로 흐드러지는 곳이다. 매년 2월부터 3월까지 노리매 매화축제도 할 만큼 매화꽃이 많다.
노리매라는 뜻도 순우리말 '놀이'와 매화의 합성어이다. 매화공원을 시작으로 포토존이 준비 되어 있어 제주도에서 흔히 '인생샷'이라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한 곳이다. 산책로 곳곳에 포토존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 공원에 사람이 많아도 기다리지 않고 사진찍기에 좋다.
카페와 레스트랑 그리고 기프트샵도 있어 볼거리 먹을거리를 즐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에 위치해 있다.

조천스위스마을

제주에도 유럽인 듯 유럽이 아닌 곳이 있다. 해외를 나가지 않아도 이국적인 느낌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는 마을인데, 국내에서 이러한 유명한 마을이 몇 군데 있다. 아산 지중해마을과 남해 독일마을, 가평 스위스마을 정도가 생각나는데, 지금 소개할 곳은 제주도 조천읍 와산리 일대에 만들어 놓은 스위스마을이다.

스위스마을 저 멀리 푸른 제주 바다가 보일 정도로 경치가 좋다. 빨강, 노랑, 연두색 등 알록달록한 색으로 외벽을 칠해 두었고, 지붕은 빨간색으로 덮여 있다. 최근 여기가 제주도에서 이색사진을 남기기 좋은 곳으로 여러 곳에서 소개가 되어 유명해졌다.

각각 건물마다 카페와 악세서리가게 그리고 카페가 입점되어 있다. 공항도 가까워 여행 오는 날이나 떠나는 날 시간이 남았다면 한 번쯤 들러 이색적인 사진 남기기에도 좋을 것 같다. 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있다.

휴애리공원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매화 축제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휴애리자연생활공원은 2월과 3월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핫한 여행지로 꼽히기도 한다. 이유는 휴애리공원의 매화축제 때문이다.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수국축제를 하고, 11월부터 1월 사이에는 동백정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에 꽃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휴애리공원에서는 유료체험이라고 해서 감귤체험과 승마체험도 있으며, 흑돼지쇼도 있어 가족끼리 여행하기에 안성마춤인 곳이다. 공원은 산책로를 따라 매화길과 매실 토굴, 매화동산, 동백정원, 수국정원, 각종 체험장과 잔디광장을 지나 매점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빨라야 1시간은 족히 걸리는 볼거리 많은 곳이다. 3월에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꼭 들러 볼만한 곳으로 강추한다. 〈출처: 한국관광공사〉

김대복 박사의 구취 궁금증 퀴즈②

입냄새 제거 특효약이 있다? 없다?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현대인은 구취에 매우 민감하다. 입냄새는 본인에게는 고민을, 타인에게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구취에 관한 궁금증을 김대복 한의학박사(혜은당클린한의원장)의 퀴즈 풀이로 알아본다.

미세먼지가 입 냄새에 영향을 줄까?

김대복 박사의 답변은 '영향을 준다'이다. 미세먼지는 구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기존의 입냄새도 악화시킨다. 미세먼지에는 중금속, 발암물질, 내분비교란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인체의 면역 세포는 호흡으로 흡입한 독성을 함유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염증반응이 일어난다.

특히 아주 작은 입자의 초미세먼지는 폐를 통과하고,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의 농도를 짙게 해 심혈관 질환을 유발시킨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미세먼지(PM10)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1% 증가한다. 초미세먼지는 심혈관계, 호흡기질환, 뇌신경계질환의 한 원인이 된다. 초미세먼지와 직접 연관된 것은 호흡기질환, 폐렴, 천식, 비염, 중이염, 탈모, 결막염, 당뇨, 고혈압 등 다양하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폐의 감염이나 혈액 오염은 구취의 직접 원인이 된다. 폐의 질환은 폐렴, 폐농양, 폐혈관염, 폐종양, 폐암, 폐결핵, 천식, 낭포성섬유증 등이다. 폐에 염증이나 감염이 생기면 숨을 내쉴 때 냄새가 배여 나온다. 폐농양, 폐종양, 기관지확장증 등처럼 폐나 기관지에 농이 있으면 부패로 인한 썩은 듯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

폐는 혈액을 타고 온 다른 장부의 냄새도 배출한다. 당뇨병의 과일향, 위장질환의 썩은 계란 냄새, 간 질환의 암모니아향 등이다. 또 음주와 흡연, 음식물 냄새의 배출에도 폐가 위, 입과

함께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감기 기침 등의 호흡기질환과 알레르기 비염은 입 냄새와도 밀접하다. 초미세먼지가 폐와 기관지에 지속적으로 쌓이면 기침과 가래가 발생한다. 또 점막이 자극되고 건조해진다. 이는 세균의 증식 여건이 돼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목 이물감, 콧물, 재채기, 후두염, 폐렴, 천식, 만성폐쇄성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코의 점막을 자극한다. 그 결과 콧물이 나고 코도 막히는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고, 치료되지 않은 비염은 부비동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비염과 부비동염은 모두 구취의 원인이 된다.

또 코, 편도, 폐 관련 질환은 구강건조증의 요인이 돼 입 냄새를 심하게 한다. 미세먼지가 많고 일교차도 심한 가을과 겨울철에는 목 통증과 목 이물감을 포함한 호흡기질환에도 취약해 구취 요인은 더 심해진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폐와 관련이 많다. 이에 따라 치료 때는 폐의 풍한, 열(火)과 연관성도 생각해야 한다. 풍한이 폐에 들면 폐비(肺痺)가 생기고, 기침을 하며 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 등이다. 동의보감에서도 상초의 열을 기침과 폐위(肺痿)의 원인으로 보았다. 폐위는 탁한 가래나 타액 속에 피고름이 섞인 것이다. 또 구강 건조와 기침, 가슴 통증, 입 마름, 기침, 가슴 통증이 폐옹(肺癰)으로 악화됨을 설명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폐질환과 혈액질환, 호흡기질환은 직접적인 치료와 함께 면역력 강화 처방이 필요하다.

입 냄새는 완치가 가능할까?

입 냄새는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환이다. 재발은 처음 진단 실패, 치료 미진, 환경 변화를 생각할 수 있다. 입 냄새 원인은 치과,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요인 등 다양하고 각 요인이 중복된 경우가 많다. 극히 일부지만 진단 잘못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 겉으로 나타난 증상이 사라지자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재발 위험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완치되었으나 입 냄새 유발 환경에 계속 노출될 때다. 이는 기존의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구취가 발생할 수 있다.

구취는 흔히 동반되는 목 이물감, 소화기 질환, 편도결석, 후비루, 이비후과질환, 혈액질환 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질과 증상에 맞는 적합한 처방을 하면 치료가 잘 된다. 보통 2~3개월 치료하면 완치가 된다. 증상과 원인에 따라 1개월 만에 치료될 수도 있다.

입 냄새 원인은 극히 일부가 당뇨, 심장질환, 폐질환 등의 특수 질환이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섭생이나 습관 또는 이에 파생된 질환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위와 장에 부담을 주는 과식, 불규칙한 식사, 잠자리 들기 전의 야식, 다이어트, 경쟁과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강호흡, 침샘 분비 저하, 후비루, 설태, 비염이나 축농증, 위산역류, 매핵기 등이다.

이 같은 대부분 증상은 위열 발생, 위산 역류, 인후두 자극이나 염증, 타액 분비 감소, 설태, 구내염 등의 원인이 된다. 특히 입마름과 음식찌꺼기, 구강에서 떨어진 상피세포는 혐기성 세균의 증식 여건이 돼 구취를 발생시킨다. 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소화불량, 폭식, 면역력 저하, 구취 악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진다.

따라서 치료는 구취의 표면적 증상 완화와 함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한의학에서는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는 가운데 소화기능 개선에 역점을 둔다. 위열 축적 요인을 제거해 운화 기능을 정상으로 돌린다. 기혈순환 촉진 탕약으로 위장 기능을 강화해 위열 해소를 하면 입 냄새 증상도 호전된다.

전반적으로 오장육부 강화 처방으로 위장질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는다. 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체중 감량, 금연 · 금주, 탄산음료 자제, 위산 자극 약물 자제, 마음 이완, 야식 금지, 식후 바로 눕는 습관 자제 등이다.

한국시멘트협회 회원사 소식

SAMPYO Cement 삼표시멘트

SPC 삼척공장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

설비팀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했다.

삼척공장 내 모든 우수 및 공업용수는 후문 메인 배수로를 통해 오십천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설비이다.

이번 공사로 설치된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삼척공장의 수질 향상 및 이로 인하여 삼척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삼표시멘트 노사는 삼척공장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에 동참하기로 2018년 임단협을 통해 합의했다. 이 제도를 통해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회사와 강원도의 지원 아래,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가입대상은 2019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원 중, 정년 도달 시까지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자에 한하며, 가입신청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삼표시멘트는 약 420여 명이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2월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삼척시 및 강원도의 최종 승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최종 확정시 공제금 납부는 신청 시점(2019년 1월)으로 소급하여 적용 예정이다.

공제금 적립은 매월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지자체에서 20만 원을 부담해,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 만기 시 총 3,000만 원 내외의 적립금을 종업원이 수령하게 된다. 다만, 가입대상자 중 본 안심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가입 직원과의 형평성 및 복지 차원에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월 15만 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 주기로 했다.

행복 증진 터전
복지관 준공
목욕탕, 헬스장 등
시설 구비
지하 1층 지상 2층 신축

지난 2월 18일 복지관 준공식을 가졌다. 복지관 준공은 그동안 내부시설 및 운영설비가 노후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사용이 불편하였던 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신축된 복지관은 연면적 1,294㎡(392평)의 규모로 지하 1층에는 기계실, 보일러실이, 1층에는 380개의 락커를 포함한 목욕탕이, 2층에는 헬스장, 노조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복지관 준공식에는 정대현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을 비롯하여 공사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관 신축에 따른 사업개요 보고, 기념사, 테이프커팅 식순으로 진행됐다. 정대현 사장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노후된 목욕탕 시설을 이용하면서 많은 불편을 감내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새로운 복지관 준공을 통하여 임직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뿌듯하고, 향후 복지관이 회사의 명실상부한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복지관은 모든 준비를 마쳤으며, 목욕탕은 사전 준비를 거쳐 3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목욕탕은 리모델링을 거쳐 회사와 상생하는 협력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쌍용양회

쌍용양회공업(주), 2018년 채무이행보증 우수 광산으로 선정

쌍용양회공업(주)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선정하는 '2018년 채무이행보증 우수광산 인증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2018년 12월 13일 동해공장 본관에서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채무이행보증 우수광산 인증사업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자원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광업발전에 기여한 채무이행보증업체를 발굴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0월 공고 후 약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 금년에는 총69개의 채무이행보증업체 가운

데 3곳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대기업으로는 쌍용양회공업(주)가 유일하다.
쌍용양회공업(주)는 친환경 광산개발을 장기간 실천해왔고, 이와 관련한 채무이행보증도 성실히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멘트사업의 성장목표 달성을 위한 폐열발전 등의 설비투자와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쌍용양회공업(주)는 본 사업의 사업자 인증으로 '19년도 광해방지사업계획 수립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향후 친환경광산개발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쌍용양회공업(주), 2019년 시무식 개최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믿음을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차게 도전합시다."

쌍용양회공업(주)는 1월 2일 본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업장에서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기해년(己亥年)을 힘차게 출발했다.
이 자리에서 홍사승 회장은 지난 한 해 경영여건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원가절감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매사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준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홍사승 회장은 올해 경영환경 역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최고의 경쟁력 확보', '안전 생활화', '고장 최소화', '조직역량 결집, 신바람 나는 일터 마련' 등을 적극 실천하여 올해의 경영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들 모두에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믿음을 갖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차게 도전해줄 것을 당부했다.
쌍용양회공업(주)는 홍사승 회장의 신년사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목표달성에 기여한 쌍용인들에게 '자랑스러운 쌍용인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영업기획팀, 해외영업팀, 생산기술팀, 영월공장 생산팀 등 4개 팀이 단체부문

공로상을 수상했고, 개인부문에서는 생산기술팀 송지호 부장, 동해공장 설비보전팀 배종식 차장, 회계팀 이제두 대리 등 3명이 우수상을, 환경자원팀 박종광 과장 외 27명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생산공장 직원자녀 초청 캠프 개최

쌍용양회공업(주)는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직원자녀 초청 캠프를 실시했다. 금번 캠프는 생산공장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친밀감을 강화하여, 활력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조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동해공장 종합기술훈련원 및 공장 인근 체험관광지에서 실시한 이번 캠프에는 동해공장, 영월공장 임직원 자녀 총 23명이 참가했다.

추대영 동해공장장의 인사와 회사 소개로 시작한 캠프 첫 날은 동해공장과 광산 투어를 진행한 후 안전관리체험현장에서 안전관리활동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이튿날은 도계 유리나라에 방문하여 글라스 페인팅 유리공예 체험 활동 후, 덕구 스파월드에서 즐거운 체험활동 시간을 보냈다. 이어 부모님들이 일하는 현장, 인터뷰 영상 등을 함께 시청하고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다시금 생각했다. 마지막 날은 공감소통연구소 변하영 소장을 초청하여 예절 Speech 교육시간을 가진 후 캠프의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직원자녀 초청 캠프에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일터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또래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좋았다”면서, “안전활동시설 소개와 관련 체험을 통하여 안전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등의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영월공장 여직원회 '해오름' 영월군의회 포상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여직원회 '해오름'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영월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영월군의회 포상을 받았다.

이 날 포상은 그동안 '해오름'이 꾸준히 쌍용지역 불우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펼쳐온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영월공장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영월군의회 엄승열 의원의 추천으로 결정되었다.

이 날 대표로 포상식에 참석한 '해오름' 김혜진 회장은 "일일카페 행사가 내년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영월공장 및 영월지역을 대표하는 공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쌍용양회공업(주) 영월공장 여직원회 '해오름'은 매년 일일카페 후원금을 활용하여 쌍용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대1 멘토 역할 및 설 • 추석 명절 위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공헌에 성실히 이바지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16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멘트 산업부문 1위 수상

한일시멘트㈜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하는 2019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시멘트 산업부문에서 16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한일시멘트㈜는 올해 시멘트 산업부문 조사에서 혁신능력, 주주가치, 직원가치, 고객가치, 사회가치, 이미지가치 총 6개의 항목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국내 시멘트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는 한일시멘트㈜가 친환경적인 제품생산, 자원 재활용,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환경 중심의 경영과 배식 봉사활동, 연탄 나르기, 녹색환경을 위한 나무심기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2011년과 2014년, 2017년 3회 연속으로 시멘트업계 최초이자, 제조업에서는 이례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녹색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15년에는 단양공장에서 생산하는 포틀랜드시멘트가 친환경 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으로 인증받기도 했다. 또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기존 포틀랜드시멘트에 비해 석회석의 사용량을 줄이고 소성온도를 낮춰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 발생을 저감할 수 있는 '저탄소 그린시멘트' 시험 생산도 성공한 바 있다.

앞으로도 한일시멘트㈜는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을 통해, 과거 경제발전 시기의 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환경보호 기업으로서 환경보존이라는 사회문제까지 해결해 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단양공장 생산팀 '소백산' 분임조 최우수상 수상

지난 12월 20일 단양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제34회 전사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단양공장 생산팀 '소백산' 분임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총 10개 분임조가 참여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에는 단양공장 기계팀 '21세기', 여주공장 '훈민정음' 분임조가, 장려상에는 단양공장 생산팀 '솔뫼', 전기팀 '우리', 청주공장 '왕거미' 분임조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이날 제안활동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단체부문 최우수제안상에는 단양공장 기계팀과 포항공장이, 개인부문 최우수제안상은 단양공장 생산팀 박대규와 포항공장 제조팀 정준희 과장이 수상했다. 또한 최다제안상에는 단양공장 생산팀 이태선과 인천공장 제조팀 윤도빈이 수상했다.

2019년 시무식 개최

한일시멘트㈜ 시무식이 지난 1월 2일 본사 18층 LOUNGE The HANIL에서 진행됐다. 곽의영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도 건설경기 하락과 원가부담 요인 확대 등 혹독한 경영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부문 전반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한일현대시멘트㈜와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2019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실시

지난 1월 2일부터 1월 18일까지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의 대졸공채 신입사원에 대한 입문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문서작성 및 업무보고법, 오피스 활용,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의 신입사원 필수 교육 과정을 비롯해 시멘트 공정 소개, 각 부서 업무 소개 등 당사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밖에도 스마트워킹을 통한 시간관리, 신입사원 자산관리법 등 자기개발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사원의 가치관과 자세를 정립하고 실무능력을 배양했다.

한일현대시멘트

2019년 시무식 개최

한일현대시멘트㈜는 지난 1월 2일 본사 18층 Lounge The HANIL에서 〈내실경영! 새로운 도전!〉의 기치아래 새로운 한 해를 여는 2019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

이주환 사장은 이 자리에서 신년사를 통해 "우리 회사를 비롯한 시멘트 산업의 경영실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는 현재 큰 틀에서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변화의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불안정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와 함께 자신이 맡은 업무 영역에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스스로 스마트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임을 강조하고 전 임직원에게 이러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아무리 훌륭한 개인 역량을 갖추더라도 〈독불장군〉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조직이 목표한 성과를 이루는 결과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 곳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는 것도 역량을 갖추는 일 못지않게 중요함을 잊지 말라"는 주문을 하며 새출발을 다짐하는 시무식을 마무리했다.

중점관리대상 현장점검 추진

지난 1월 31일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영월소방서에서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설 연휴를 맞아 관내 중점관리대상(대형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 자체 운영 중인 화재 예방을 위한 시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지원 등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영월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우리 지역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평상시 지속적인 안전 확인 습관이 우리의 안전! 회사의 안전! 지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화재 예방에 앞장서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무식 및 안전기원제 시행

단양공장은 안전한 2019년을 기원하며 시무식과 안전기원제를 시행했다.

1월 2일, 단양공장 본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신년사 대독과 모범사원 표창, 안전보건관리 및 위험 신고 우수자에 대한 시상에 이어 안전기원제를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년사에는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업무의 전문성, 자유로운 소통 문화의 정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내실 경영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당사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창 및 시상이 끝난 뒤에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전원이 안전기원제를 올리며 한 해의 무사고 무재해를 기원했다.

2018년 경영실적 보고 및 201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 개최

2019년 1월 24일 본사 18층 라운지에서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영실적 보고 및 2019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각 사업장 및 부서별 과제 및 전략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2018년도 경영목표에 미달한 실적을 보이는 부문에 대한 대책방안의 논의와 함께 2019년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확고한 의지 표현과 회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대한 토론으로 열기를 더했고,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 모두가 건설수주 및 주택허가면적 등 건설관련 선행지표의 감소세 지속, 정부의 부동산 규제강화, SOC 예산 감축 등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에 공감하고 수익성 증대를 위한 판매전략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한일현대시멘트㈜ 이주환 사장은 전략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각자 맡은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회사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회사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이 성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세아시멘트

본사 연구개발팀 · 용인공장, 사회봉사활동 표창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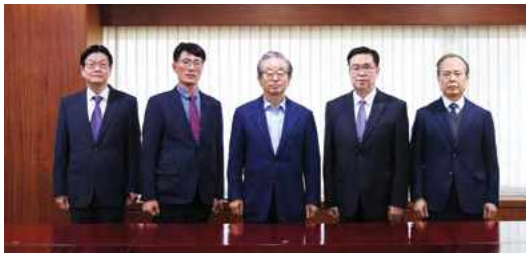
본사 연구개발팀과 용인공장 직원들은 지난 12월 7일 오산 남부종합사회복지센터로부터 적극적이고, 투철한 사회봉사활동의 실적을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편, 12월 4일에는 수원공장 김무경 공장장이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후 노인복지 증진에 힘써 대한노인회 수원시 권선구지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고, 12월 13일에는 덕소물류센터 김종필 센터장이 지역사회 행사 및 봉사활동의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

2019년 시무식 실시

아세아시멘트㈜는 2019년 1월 2일 본사와 제천공장 및 분공장별로 시무식을 실시했다. 이훈범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과 품질경영의 장착, 수익성 확보방안 도출과 실행, 지속적인 혁신활동 및 원가절감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전 임직원이 부단히 노력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노동조합에게는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발전을 위해 상호협력도 함께 당부했다. 이어 임직원 간 새해 인사를 나눈 후 기해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2019년 1월 3일 서울 본사에서 아세아시멘트㈜ 승진자 발령장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이병무 회장은 임원 승진자인 제천공장 권오봉 상무이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어려운 경영환경을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생산공장인 제천공장장의 역할 및 책무가 막중하다"며, "힘든 도전과 난제들이 많겠지만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1등 공장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1월 8일에는 이훈범 사장이 수원공장 정창봉 공장장 외 4명에게 발령장을 수여하며 건승을 기원했다.

제천공장, 미세먼지 저감조치 자발적 앞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21일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환경부와 체결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대응 전담반을 운영, 분쇄시설 가동시간 단축, 살수차량 및 살수시설 운영 확대, 차량 2부제 운행 등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앞장섰다. 제천공장은 향후에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적극적으로 대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대한 협력할 방침이다.

제천화폐 구입 약정 체결

지난 2월 27일 제천시와 제천화폐 구입약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매년 2억원 이상의 제천화폐 '모아'를 구입하여 제천화폐 활성화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권오봉 제천공장장은 "제천화폐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다 함께 잘사는 제천시가 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2018년도 하반기 임원전략회의 개최

지난 12월 19일, 2018년 하반기 실적보고회가 본사 중역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영환경 예측 및 성과추정을 시작으로 각 본부별 2019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김태현 부회장은 지난 5년의 준비과정이 현실화되어 간다고 보며, 잘 세워진 계획을 잘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9년도 시무식 개최

2019년 시무식이 1월 2일 본사 지하강당과 단양공장 교육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김태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2019년 경영방침으로 "혁신과 도전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면서, 전 사업 원가혁신을 통한 수익성 강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 해외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 기반구축을 강조했다.

2019년도 경영계획보고회 개최

2019년 1월 11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본관에서 2019년 경영계획보고회가 열렸다. 2018년 종합포상을 시작으로 2019년 경영계획보고가 이어졌다. 이날 김태현 부회장은 2019년 경영계획 목표달성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해외사업 장기적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sia HALLA CEMENT 한라시멘트

옥계공장, 강릉시 보건소 연계 금연 프로그램 실시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10일까지 옥계공장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실시됐다. 본 프로그램은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산본부 안전보건환경실 주관으로 강릉시 보건소와 함께 기획한 것으로 참가자는 옥계공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홍보를 통해

모집됐다.

안전보건환경실은 2018년 12월 6일 생산본부 3층 교육장에서 18명의 지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첫 과정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은 총 6주 과정으로서 매주 목요일 강릉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 클리닉 담당자가 회사를 방문해 실시됐으며, 체내 CO 측정 결과에 따른 금연 교육과 개인별 금연 상담 및 금연 보조제 지급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6주 이후에도 흡연 욕구가 심하거나 금연이 힘든 인원들은 보건소를 방문해 1년간 금연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게 된다. 안전보건환경실은 본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생산성 향상 및 화재 발생 감소 등의 부수적 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사무소 안전보건위원회 (SOHSC 2018) 주관 송년회 개최

지난 12월 13일, 서울사무소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서울사무소 송년회'가 개최됐다. 서울사무소 안전보건위원회(SOHSC 2018)가 준비 및 진행을 맡은 본 행사는 SOHSC 2018이 주관한 주요 행사 소개, 안전보건 시상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개인 및 조별 대항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간단한 게임도 마련되어 줄곧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이어졌다.

SOHSC 2018의 스폰서를 맡은 이건희 경영지원본부장은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모두 열심히 노력해 주어서 고맙고 이어 새해에도 모두가 합심하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한 해 동안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한라시멘트, 생물다양성 보전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 수상

표 창 장

한라시멘트㈜

귀하는 평소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여 왔으며 특히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환경부장관 조 명 래

2018년 12월 26일, 한라시멘트㈜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말 우수기업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한라시멘트㈜가 유일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게 됐다.

본 표창은 한라시멘트㈜가 지난 10여 년간 이어 온 '개발과 복원을 병행하는 중장기적 광산복구'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대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이에 앞서 한라시멘트㈜의 사업 사례는 지난 9월 산림청이 주최한 '제13회 전국 우수 산림 복원 대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에서 발간된 연간지 「기업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생물 다양성 보전 우수 사례로도 상세히 소개된 바 있다.

시상은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된 '제9차 환경부–KBCSD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진행됐다. 본 행사는 2019년 환경정책 방향과 환경규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위해 환경부 차관 및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운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이다. 회사를 대표해 시상식 단상에 오른 임경태 대표이사는 "본 수상으로 한라시멘트㈜가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가 더욱 빛나게 됐다. 앞으로도 광산복구와 멸종위기종 복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수상의 의미를 밝혔다.

환경관리팀 원동길 대리, 환경보전 기여 공로로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 수상

지난 12월 31일, 환경관리팀 원동길 대리가 환경보전에 대한 공로로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본 행사는 2018년도 주요 국정과제 및 환경시책 추진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주관으로 개최된 것으로 이날 시상에서는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에서 10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12년 안전보건환경실에 입사한 원동길 대리는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한 사업장 내 환경관리(대기/비산먼지, 폐기물재활용) 업무 전반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번 수상은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 및 TMS 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개선 등의 공을 크게 인정받은 결과이다.

원동길 대리는 "이번 수상은 회사의 환경관리인으로서 사업장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해 달라는 주문이라 생각한다"며 "깊은 사명감으로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로 포부를 밝혔다.

협력업체 윤 전기서 부장, 해양수산업무 유공자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상

2019년 1월 2일, 협력업체 윤 소속으로 장항유통기지에서 근무 중인 전기서 부장이 해양수산업무 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기서 부장은 지난 27년간 시멘트 터미널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항항의 시멘트 물동량 유지 및 안전작업 확보 등 해양수산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표창 수여식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시무식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이날 전기서 부장을 비롯해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 관련 사업장 근로자 19명이 각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전기서 부장은 "모든 직원들이 한 발이 아닌 두 발로 움직여 보다 안전하고 좋은 사업장을 만들고, 내가 아닌 우리가 되어 발전을 이뤄 갔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남겼다.

옥계공장,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적 저감조치 시행

옥계공장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시행된다. 본 조치는 2019년 1월 25일, 시멘트 · 정유 · 석유화학 · 제철 · 발전 등 5개 업종 내 51개 대형 민간사업장이 체결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옥계공장에서는 생산본부장 직속의 '비상저감조치 전담반'이 구성되었다. 전담반은 환경관리팀을 총괄로 공장생산팀, 항만생산팀, 전기팀 담당자들로 구성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각종 대응 프로그램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분쇄시설 가동시간 단축 △살수시설 운영 △전 직원 차량2부제 실시 △방지시설 환원제 투입량 증대 △비상발전기 가동 자제 등이다. 이 외에도 옥계공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매일 2회씩 공장 외곽 도로 14km 구간에 대해 전용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으며, 공장 내에서도 도로 청소차 2대 및 살수차 1대를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환경관리팀 최일규 팀장은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이슈에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사업장 단위의 자발적 미세먼지 저감활동"이라며 "기존 설치되어 있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의 보완 및 운영 최적화,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만공장에서 '안전점검의 날 맞이 안전캠페인 및 안전점검 행사' 실시

2019년 2월 22일, 항만공장에서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 맞이 안전캠페인 및 안전점검 행사'가 실시됐다.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과 안전의식 고취 행사가 실시되며, 이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특별히 한라시

멘트㈜에서 안전행사가 개최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라는 주제로 △컨베이어 등 기계 · 설비 끼임 및 지게차 재해 발생 위험 작업현장 순회점검 △작업 전 안전점검 이행 상태 점검 △기타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 점검 △점검 결과 강평 및 사고사망 재해 경각심 고취 캠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당사 안전보건 담당자들과 더불어 노동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동부지사장 이하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전 11시부터 항만공장 내 포장 시멘트 출하장과 지대 포장 출하 컨베이어에서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안전관리팀 김한수 팀장은 "무재해 사업장을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안전보건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요소를 식별해 개선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안전의식 제고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018년 안전보건활동 평가 시상식' 개최

2019년 2월 25일, 옥계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2018년 안전보건활동 평가 시상식'이 개최됐다. 본 시상은 당사 각 현장 내 안전보건활동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18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치하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이훈범 사장 이하 생산본부장 및 임직원과 수상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다.
당사 10개 현장 운영팀과 특정 현장 2곳(옥계 본관 사무실, 자재창고)이 대상으로 해당 현장 직원들은 매년 다양한 안전보건활동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안전보건활동 참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항목 준수, 위험관리 항목 준수 등으로써 우수팀 및 유공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진다.
2018년 평가 결과 최우수상(유공자)은 광양공장팀(이계문, 이광수 사원), 우수상(유공자)은 기계팀(임명섭 과장, 김양섭 반장)과 포항공장팀(장수일 부장, 정종업 사원)이 수상했다. 선정된 팀과 유공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소정의 상금이 전달됐다.

광산 현장 직원 대상 '안전교육센터 상반기 Refresher 교육' 실시

2019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옥계공장 광산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관 사무실 1층 안전교육센터에서 '안전교육센터 상반기 Refresher 교육'이 4차수에 걸쳐 실시됐다. 교육은 이동장비 안전, 벨트 컨베이어 안전, 스톡 · 서지파일 안전작업, 에너지 차단, 응급처치 등 광산 현장 내 안전작업과 관련된 5개 교육장에서 이뤄졌다. 현장 작업 일정을 고려해 4차수로 진행된 상반기 교육에는 광산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236명이 참석했다.

2019년 '전사안전보건 개선계획' 발표

2019년 2월 27일, 2019년 '전사안전보건 개선계획'이 공지됐다. 본 계획은 전사안전보건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전사적 참여로 안전보건 개선을 실행함으로써 사고 예방 및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고자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19년 안전보건 목표 및 핵심추진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되는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과도 연계된다. 2019년 안전보건 KPI 및 주요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은 아래와 같다.

안전보건 KPI	중점 추진사항
–근로손실재해 빈도율: 0.0(무재해 365일) –총 재해 빈도율: 0.80 –아차사고 보고 투명도: 0.8–1.5 –VFL, 팀장 안전감사, 안전관찰: 4,500시간 –안전보건 교육시간: 29,000시간 –내외부 감사: 35회 –위험개선 진행율: 95% 이상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활동 경영진 현장방문, 안전보건 감사활동, 안전어울림 활동, 안전 캠페인 –위험관리 위험성 평가서 업데이트, 불안전한 행동 개선 안전 캠페인, 청력보존 프로그램, 금연 프로그램,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과의 교차 안전점검 –협력업체 안전관리 개선 협력업체 대표자 정기 협의회, 합동 안전점검, 협력업체 안전활동 평가 –안전보건 교육 정기 · 특별 안전교육, 안전교육센터 교육, 방어운전교육 등

'한라시멘트㈜ 노동조합 제31년차 정기대의원 대회' 개최

2019년 3월 8일, '한라시멘트㈜ 노동조합 제31년차 정기대의원 대회'가 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된 행사에는 박천복 위원장 이하 노동조합 임원, 상집위원, 대의원, 전임 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제31년차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보고, 제32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현장직 우수 사원 12명에 대한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천복 위원장은 "본 대회는 아세아시멘트㈜와 함께한 지 1년여 남짓한 시점에서 새로운 전진과 도약을 위해 증진을 규합하는 자리"라고 화합을 강조하며, "최근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 고유의 현장중심 운영체계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스킬과 노하우 등의 기술을 충분히 전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현장직 우수 사원 명단	
위원장 표창	홍재흘(항만생산팀), 김영진(기계팀), 윤재호(온산유통기지)
대표이사 표창	강태기(공장생산팀)
생산본부장 표창	채희현(공장생산팀)
연맹 위원장 표창	이영민(인천유통기지), 김원식(기술지원팀)
노총 도본부 의장 표창	이호열(광양공장팀), 문영환(포항공장팀)
지역지부 의장 표창	남경식(전기팀), 이명섭(품질관리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장 표창	배선업(항만생산팀)

HCT 한국씨엔티
HANKOOK CEMENT & TEXTILE CO.,LTD.

노사협력유공자 포상

2019년 2월 26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경영자총협회 총회에서 한국씨엔티㈜ 박춘석 과장이 노사협력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김영미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평소 상생의 노사파트너십을 실천하고 노사협력 분위기를 산업현장에 확산되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여 노사협력유공자로 포상했다.

회원사 인사동정

㈜삼표시멘트

구 분	발 령 일 자	성 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 고
보임	2018.12.12.	이종석	경영기획본부장/전무	관리부문장/전무	임원
보임	2018.12.12.	최윤선	설비관리본부장/상무보	광산설비담당/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배동환	생산기획담당/상무보	생산본부장/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정진호	광산기획담당/상무보	관리본부장/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이재식	관리담당/상무보	HR담당/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배종기	생산기획팀장/부장	생산기획담당/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이은혁	중앙지사장/부장	중앙지사장/상무보	임원
보임	2018.12.12.	이우건	NLP TFT/부장	전기팀장/부장	
보임	2018.12.12.	차창환	NLP TFT/부장	기술팀장/부장	
보임	2018.12.12.	장주찬	6,7K공정MASTERY TFT/차장	공정개선팀장/차장	
보임	2018.12.12.	심연석	6,7K공정MASTERY TFT/차장	자원재활용팀장/차장	
보임	2018.12.12.	이용우	HR팀/차장	HR팀(서울)/팀장	
보임해제	2018.12.12.	이석제	공정개선팀장/부장	기술팀/부장	
보임해제	2018.12.12.	지덕규	자원재활용팀장/부장	자원재활용팀/부장	
계열사전출	2018.12.12.	김선배	광산개발팀장/부장	삼표골재	
보임	2018.12.12.	나영찬	NLP TFT/차장	기술팀/차장	
보임	2018.12.12.	김경필	NLP TFT/차장	기술팀/차장	
보임	2018.12.12.	조희석	6,7K공정MASTERY TFT/차장	공정개선팀/차장	
보임	2018.12.12.	박정윤	6,7K공정MASTERY TFT/차장	공정개선팀/차장	
보임	2018.12.12.	김장욱	유통기지관리팀/부장	설비관리팀/부장	
보임	2018.12.12.	이종훈	광산생산팀/차장	설비관리팀/차장	
보임	2018.12.12.	최은수	생산기획팀/과장	유통기지관리팀/과장	
보임	2018.12.12.	이수동	제품팀(동해)/부장	품질팀/부장	
계열사전출	2018.12.12.	이강현	광산개발팀/과장	삼표골재	
보임	2018.12.12.	김상규	생산기획팀/차장	운영관리팀/차장	
보임	2018.12.12.	서정우	T/S팀(경상)/부장	설비관리팀/부장	
보임	2018.12.12.	손호균	영업기획팀장/부장	서울영업팀장/부장	
보임	2018.12.12.	이신우	영업기획담당/부장	영업기획팀장/부장	
보임	2018.12.12.	김민욱	전남지사장/부장	호남지사장/부장	
보임	2018.12.12.	정영환	전북지사장/차장	전북영업팀/차장	
보임	2018.12.12.	권익성	경영관리팀/차장	업무개선팀장/차장	
보임	2018.12.12.	윤태원	경영관리팀/차장	업무개선팀/차장	
보임	2018.12.12.	김상진	경영관리팀/차장	경영관리팀장/차장	
보임	2019.01.01.	박일균	구매팀/차장	전략구매팀/차장	
보임	2019.01.01.	임호찬	구매팀/부장	설비구매팀장/부장	
보임	2019.01.01.	박성훈	구매팀/과장	설비구매팀/과장	
보임	2019.01.01.	유원근	구매팀/과장	조업구매팀/과장	
신채	2019.01.29.	강민호		공무팀/과장	
신채	2019.02.01.	문종구		COO/사장	임원
신채	2019.02.01.	송종식		삼척공장 생산부공장장/전무	임원
신채	2019.02.01.	정성래		광산본부장/전무	임원
보임	2019.02.01.	최법호	정비본부장/상무	정비담당/상무	임원
보임	2019.02.01.	배동환	생산본부장/상무보	생산담당/상무보	임원
보임	2019.02.01.	정진호	관리본부장/상무보	관리담당/상무보	임원

㈜삼표시멘트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보임	2019.02.01.	오병철	광산생산팀/차장	전략자원화팀/차장	
보임	2019.02.01.	김수정	광산생산팀/과장	전략자원화팀/과장	
전입	2019.02.01.	정규식		대외협력팀/부장	
보임	2019.02.01.	김용태	유통기지관리팀장/부장	설비관리팀/부장	
보임	2019.02.01.	서정우	설비관리팀/부장	유통기지관리팀/부장	
보임	2019.02.01.	남익호	유통기지관리팀/차장	유통기지관리팀장/차장	
보임	2019.02.01.	최진호	유통기지관리팀/과장	감사팀/과장	
보임	2019.02.01.	안상원	감사팀/과장	전략자원화팀/과장	
보임	2019.02.01.	허철웅	경영관리팀/과장	대외협력팀/과장	
보임	2019.02.15.	박성준	기술영업팀장/부장	영업기획팀장/부장	
보임	2019.02.15.	전중규	특수영업팀장/부장	특수영업지사장/부장	
보임	2019.02.15.	김진	충청영업팀/부장	충청영업팀장/부장	
보임	2019.02.15.	이신우	영업기획팀장/부장	강원영업팀장/부장	
보임	2019.02.15.	최승호	건설영업팀장/차장	건설영업팀장/부장	
보임	2019.02.15.	박병준	제주지사장/차장	제주영업팀장/차장	
보임	2019.02.15.	김성철	T/S팀/차장	기술영업팀장/차장	
보임	2019.02.15.	서준연	경북지사장/차장	경북영업팀장/차장	
보임	2019.02.15.	박성호	충청영업팀장/차장	서울영업팀/차장	
전입	2019.02.15.	김성수		특수영업팀/차장	
계열사전출	2019.02.15.	김기수	화성영업팀장/차장	삼표기초소재	
보임	2019.02.15.	권오찬	부산영업팀/차장	경영관리팀/차장	

쌍용양회공업㈜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승진	2018-12-18	추대영		전무	임원
승진		정준덕		상무	임원
승진		김철원		상무	임원
승진		김재중		상무	임원
승진		박진형		상무	임원
신임		백승명		상무보	임원
승격	2018-12-18	조은상	충청지사장(부장)	충청지사(부장이사)	
승격		황지훈	해외영업팀장(부장)	해외영업팀장(부장이사)	
승격/이동		김창원	생산기술팀장(부장)	생산기획팀장(부장이사)	
승격		남승엽	영월공장 설비보전팀장(부장)	영월공장 설비보전팀장(부장이사)	
승격		이재호	물류팀장(부장)	물류팀장(부장이사)	
승격		최인호	경영기획팀(차장)	경영기획팀(부장)	
승격		이창연	동해공장 동해광산팀(차장)	동해공장 동해광산팀(부장)	
승격		남철호	동해폐열발전건설사무소(차장)	동해공장 설비보전팀(부장)	
승격		조도연	영월공장 설비보전팀(차장)	영월공장 설비보전팀(부장)	
승격		김준원	경영관리팀(과장)	경영기획팀(차장)	
승격		강영구	법무팀(과장)	법무팀(차장)	
승격		심창용	영업기획팀(과장)	중앙지사(차장)	
승격		이일환	영업기획팀(과장)	영업기획팀(차장)	
승격		박명훈	제주지사(과장)	제주지사(차장)	
승격		김재영	해외영업팀(과장)	해외영업팀(차장)	
승격		김헌석	동해공장 생산1팀(과장)	동해공장 생산1팀(차장)	
승격		함형석	동해공장 생산2팀(과장)	동해공장 생산2팀(차장)	
승격		안우준	해운센터 공무팀(과장)	해운센터 공무팀(차장)	
승격		박종광	환경자원팀(과장)	환경자원팀(차장)	
승격		곽진열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차장)	
승격		박철	기술연구소 콘크리트연구실(과장)	기술연구소 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차장)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승격	2018-12-18	방종환	동해공장 설비보전팀(대리)	동해공장 설비보전팀(과장)	
승격		소경묵	동해공장 자원사업팀(대리)	동해공장 자원사업팀(과장)	
승격		채준	영월공장 업무지원팀(대리)	영월공장 업무지원팀(과장)	
승격		배기득	동해공장 업무지원팀(대리)	인사총무팀(과장)	
승격		이태우	기술연구소 공정기술연구팀(대리)	기술연구소 공정기술연구팀(과장)	
승격		박성현	기술연구소 기술서비스팀(대리)	기술연구소 기술서비스팀(과장)	
이동	2018-12-18	황상희	동해공장 북평공장장	설비기술팀장	
이동		강철구	생산기술팀	동해공장 생산혁신건설사무소장	
이동		한종환	영월공장 생산팀장	동해공장 생산2팀장	
이동		정용운	동해공장 환경안전팀장	동해공장 북평공장장	
이동		이현귀	동해폐열발전건설사무소장	동해공장 설비보전팀장	
이동		이광조	영월공장 품질관리팀장	동해공장 품질관리팀장	
이동		송정엽	생산기술팀	동해공장 환경안전팀장	
이동		김경호	생산기술팀	동해공장 사회공헌팀장	
이동		도홍기	동해공장 생산2팀장	영월공장 생산팀장	
이동		김민성	동해공장 품질관리팀장	영월공장 품질관리팀장	
이동		박상민	인사총무팀	인사총무팀장	
이동		임채용	기술연구소 콘크리트연구실	기술연구소 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장	
이동		길준호	기술연구소 시멘트연구실	기술연구소 공정기술연구팀장	
이동	2018-12-21	이종석	경영관리팀	경영기획팀 근무(차장)	
이동		김준원	경영관리팀	경영기획팀 근무(차장)	
이동		김종욱	동해공장 광양공장	감사팀(차장)	
이동		심창용	영업기획팀	중앙지사(차장)	
이동		김성덕	부산지사	부산지사 울산영업소장(부장)	
이동		조준배	경영관리팀	부산지사 창원영업소(차장)	
이동		이광영	강원지사 원주영업소	특수시멘트팀(차장)	
이동		한창현	부산지사 창원영업소	부산지사(과장)	
이동		조영식	특수시멘트팀	강원지사 원주영업소(과장)	
이동		김선기	경영기획팀	생산기획팀(부장)	
이동		이준영	경영기획팀	생산기획팀(과장)	
이동		송지호	생산기술팀	생산기획팀(부장)	
이동		복장빈	생산기술팀	생산기획팀(과장)	
이동		소경묵	동해공장 자원사업팀	생산기획팀(과장)	
이동		하남수	동해폐열발전건설사무소	설비기술팀(부장)	
이동		이상혁	생산기술팀	설비기술팀(차장)	
이동		김승태	영월공장 설비보전팀	설비기술팀(과장)	
이동		김훈래	동해폐열발전건설사무소	동해공장 생산혁신건설사무소(차장)	
이동		이수형	생산기술팀	동해공장 생산혁신건설사무소(차장)	
이동		나근주	생산기술팀	동해공장 관리실(부장)	
이동		김충섭	동해공장 삼척광산팀	동해공장 신기광산팀(과장)	
이동		남철호	동해폐열발전건설사무소	동해공장 설비보전팀(부장)	
이동		곽진열	인사총무팀	동해공장 업무지원팀(차장)	
이동		성동욱	영월공장 업무지원팀	동해공장 광양공장(과장)	
이동		이경렬	동해공장 신기광산팀	동해공장 자원사업팀(과장)	
이동		박대근	동해공장 설비보전팀	영월공장 설비보전팀(과장)	
이동		성용주	중앙지사	영월공장 업무지원팀(과장)	
이동		박철	기술연구소 콘크리트연구실	기술연구소 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차장)	
이동		손영준	기술연구소 콘크리트연구실	기술연구소 시멘트콘크리트연구팀(과장)	
이동		이태우	기술연구소 시멘트연구실	기술연구소 공정기술연구팀(과장)	
이동		배기득	동해공장 업무지원팀	인사총무팀(과장)	
이동	2019-02-12	우병광	동해공장 자원사업팀(차장)	동해공장 삼척광산팀(차장)	

아세아시멘트㈜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승진	2019. 1. 1	권오봉	이사 제천공장 공장장	상무이사 제천공장 공장장	임원
〃		김장원	이사 아세아㈜ 경영지원팀 담당 이사 (경영지원팀장 겸직)	상무이사 아세아㈜경영지원팀 담당 상무 (경영지원팀장 겸직)	임원
〃		김태형	부장 아세아㈜ 경영관리팀 (경영관리팀장)	이사대우 아세아㈜ 경영관리팀 담당 이사 (경영관리팀장 겸직)	임원
〃		이찬우	차장(1級乙)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전산팀장)	부장(1級甲) 본사 지원기획본부 전산팀 (전산팀장)	
〃		석근철	차장(1級乙)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팀장)	부장(1級甲)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환경안전팀장)	
〃		차완호	차장(1級乙)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품질연구파트장)	부장(1級甲)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품질연구파트장)	
〃		안승근	과장(2級) 제천공장 자원개발팀 (자원개발파트장)	차장(1級乙) 제천공장 자원개발팀 (자원개발파트장)	
〃		천종대	과장(2級) 대구공장(D/M파트장)	차장(1級乙) 용인공장(D/M파트장)	
〃		이영준	과장(2級) 서울레미콘공장(영업파트장)	차장(1級乙) 서울레미콘공장(영업파트장)	
〃		권용범	과장(2級) 아세아㈜ 업무개선팀	차장(1級乙) 아세아㈜ 업무개선팀(업무개선팀장)	
〃		김영일	대리(3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구매팀	과장(2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기획팀	
〃		이제환	대리(3級) 본사 지원기획본부 기획팀	과장(2級) 제천공장 공무팀	
〃		신봉근	대리(3級)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과장(2級) 제천공장 환경안전팀	
〃		김현석	대리(3級) 수원공장	과장(2級) 서울레미콘공장	
〃		하어수	대리(3級) 대구공장	과장(2級) 대구공장	
〃		차주용	대리(3級) 서울레미콘공장(제조파트장)	과장(2級) 서울레미콘공장(제조파트장)	
직책승진		권상진	과장 제천공장 기술연구소	제천공장 기술연구소(제품연구파트장)	
〃		김동도	과장 대구공장 구미영업소	대구공장 구미영업소(구미영업소장)	
이동		김무경	부장 수원공장(수원공장 공장장)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영업팀(시멘트영업팀장)	
〃		정창봉	차장 본사 영업본부 시멘트영업팀 (시멘트영업팀장)	수원공장(수원공장 공장장)	
〃		최종철	차장 제천공장 생산팀(생산파트장)	제천공장 기술연구소(공정연구파트장)	
〃		홍진배	차장 제천공장 기술연구소(공정연구파트장)	제천공장 생산팀(생산파트장)	
〃		임영수	차장 용인공장(D/M파트장)	대구공장(D/M파트장)	
〃		김지철	차장 대구공장 구미영업소(구미영업소장)	대구공장(관리파트장)	
〃		황승현	차장 아세아㈜ 업무개선팀	본사 영업본부 레미콘영업팀	
〃		김인철	과장 본사 지원기획본부 총무팀(인사파트)	아세아㈜ 경영관리팀	
〃		김한철	과장 제천공장 생산팀(제품파트)	제천공장 공무팀(전기파트)	
〃		이근욱	제천공장 생산팀(생산파트)	제천공장 환경안전팀(안전보건파트)	
〃		김영구	제천공장 기술연구소(제품연구파트장)	제천공장 생산팀(생산파트)	
〃		이석락	수원공장(제조파트장)	대구공장(제조파트장)	
〃		최명화	서울레미콘공장(품질관리파트장)	중부공장(품질관리파트장)	
〃		임동수	대전공장(품질관리파트장)	서울레미콘공장(품질관리파트장)	
〃		박장규	대구공장(제조파트장)	수원공장(제조파트장)	
〃		오세현	아세아㈜ 경영관리팀	아세아㈜ 업무개선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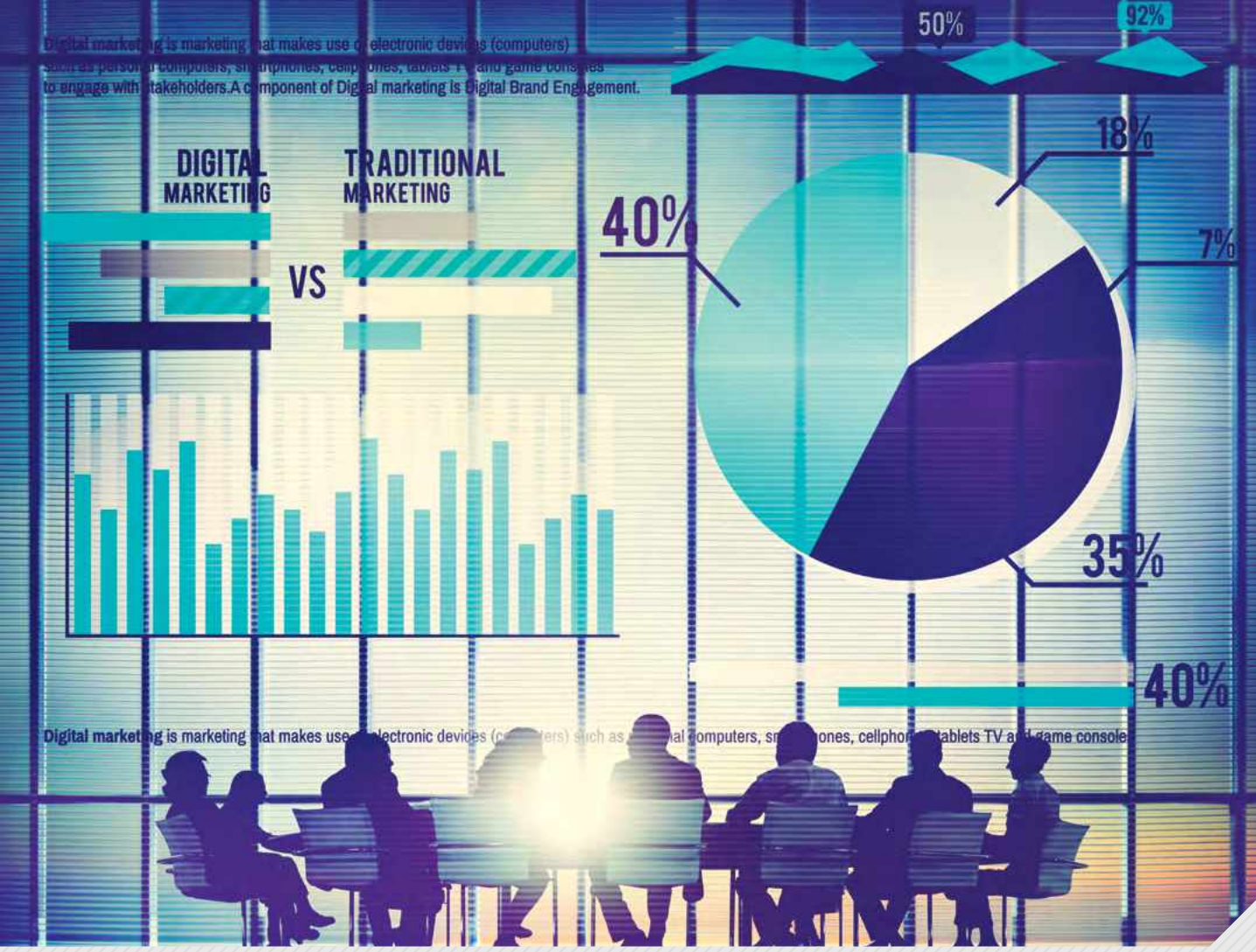
성신양회(주)

발령일자	구분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2019.1.1.	차장▶부장	윤승원	본사 정보기획팀 차장(팀장)	본사 정보기획팀(팀장)	
		양재철	싱가포르법인(법인장)	싱가포르법인 진성인터내셔널(법인장)	
		이상태	본사 신용관리팀(팀장)	본사 신용관리팀(팀장)	
		손준원	본사 통합구매팀(팀장)	단양공장 생산기획팀(팀장)	
		윤철현	단양공장 품질관리팀(팀장)	단양공장 품질관리팀(팀장)	
		김국진	본사 신규사업팀(팀장)	단양공장 사업개발팀(팀장)	
		허남민	단양공장 사업개발팀(팀장)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제품개발Part(파트장)	
	과장▶차장	정선형	본사 총무팀	본사 총무팀	사회공헌팀 겸무
		박정효	본사 정보기획팀	본사 정보기획팀	
		황중식	본사 총무팀(사회공헌팀 겸무)	본사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박준석	본사 해외사업팀	본사 해외사업팀	
		박철규	인도네시아지사(지사장)	인도네시아사무소(소장)	
		권의성	본사 인사팀	본사 재무기획팀	
		서인석	본사 자금팀	본사 자금팀	
		곽성근	본사 회계팀	본사 회계팀	
		박동수	단양공장 PM팀	단양공장 생산기획팀	
		이재윤	본사 기술팀	단양공장 기술지원팀	
		박종만	단양공장 생산1팀	단양공장 생산1팀	
		홍용호	단양공장 생산1팀	단양공장 생산1팀	
		김흥수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기계파트(파트장)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기계파트(파트장)	
		김형철	기술연구소	기술연구소	
		박동욱	단양공장 관리팀 자재파트	단양공장 구매팀 자재파트(파트장)	
		지양수	부강공장 생산품질팀(팀장)	부강공장 관리팀(팀장)	
		이강영	중앙지사 중앙영업소(소장)	중앙지사 중앙영업소(소장)	
	대리▶과장	윤성운	본사 경영기획팀	본사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지명근	본사 자금팀	본사 자금팀	
		황성현	본사 경영기획팀 혁신Part	본사 회계팀	
		최우호	단양공장PM팀	단양공장 공정개선팀 PM파트	
		김동휘	단양공장 생산2팀	단양공장 생산2팀	
		장보영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기계파트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기계파트	
		정경환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제품개발파트	
		양진호	본사 물류관리팀	본사 물류관리팀	
		한영수	본사 기술영업팀	본사 특수영업팀	
		안재홍	중앙지사 중앙영업소	중앙지사 중앙영업소	
		김도윤	중앙지사 의왕영업소	중앙지사 의왕영업소	
		정현덕	서부지사 논산영업소(소장)	서부지사 논산영업소(소장)	
	부서이동 (부장)	전지훈	본사 경영기획팀(팀장)	본사 인사팀(팀장)	
		김진산	단양공장 관리팀(팀장)	본사 총무팀(사회공헌팀장 겸무)	
		오세원	본사 인사팀(팀장)	본사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팀장)	
		조길량	단양공장 PM팀(팀장)	본사 경영전략실 생산기술팀(팀장)	
		이학재	본사 감사팀(팀장)	본사 경영전략실 관리팀(팀장)	
		민성환	본사 해외사업팀(팀장)	미얀마법인(법인장)	
		최혁재	본사 회계팀(팀장)	본사 재무기획팀(팀장)	
		장태혁	본사 환경기후팀(팀장)	본사 감사팀(팀장)	
		이선동	본사 기술팀(팀장)	단양공장 기술지원팀	
		박은수	본사 총무팀(팀장)	단양공장 관리팀	
		김종언	단양공장 생산기획팀(팀장)	단양공장 구매팀(팀장)	
	부서이동 (차장)	이현석	본사 경영기획팀	본사 경영전략실 전략기획팀	
		원도희	본사 기술팀	본사 경영전략실 생산기술팀	
		김진만	단양공장 생산2팀 제품파트	본사 경영전략실 생산기술팀	
		홍성덕	단양공장PM팀	본사경영전략실 생산기술팀	
		노경욱	본사 경영기획팀	본사 경영전략실 관리팀	
		김건수	본사 감사팀	본사 경영전략실 관리팀	
		임준호	본사 경영기획팀 혁신파트(파트장)	본사 경영전략실 관리팀	
		김설규	본사 경영기획팀	본사 재무기획팀	
		장성남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전기파트(파트장)	단양공장 공정개선팀 PM파트(파트장)	
		유학종	본사 기술팀	단양공장 공정개선팀 PM파트	
		김종민	본사 통합구매팀	단양공장 공정개선팀 공정개선파트	
		이성호	본사 감사팀	단양공장 자원관리팀(팀장)	
		이민석	본사 기술영업팀	단양공장 기술연구소 기술영업파트(파트장)	
		변승호	본사 기술영업팀	단양공장 기술연구소 기술영업파트	
		엄태영	본사 자금팀	단양공장 관리팀 관리파트(파트장)	
		원주환	단양공장 관리팀 자재파트(파트장)	단양공장 구매팀 구매파트	
		고성균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제품개발파트	
		안광용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순환자원파트(파트장)	

발령일자	구분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부서이동 (과장)	강준우	본사 자금팀	본사 경영전략실 관리팀	
		강현욱	본사 해외사업팀	싱가포르법인 진성인터내셔널 하노이사무소(소장)	
		주범진	본사 경영기획팀	본사 재무기획팀	
		박경호	본사 회계팀	본사 자금팀	
		박성진	본사 경영기획팀 혁신파트	본사 감사팀	
		문영범	기술연구소	단양공장 기술지원팀	
		홍만기	본사 기술영업팀	단양공장 기술연구소 기술영업파트	
		김욱	본사 통합구매팀	단양공장 구매팀 구매파트	
		유동균	단양공장 관리팀 자재파트	단양공장 구매팀 구매파트	
		김우태	본사 통합구매팀	단양공장 구매팀 구매파트	
		박주식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구매팀 자재파트	
		신중언	본사 신규사업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제품개발파트	
		김진선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순환자원파트	
		김성호	부강공장 생산품질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순환자원파트	
		이상기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단양공장 사업개발팀 순환자원파트	
		윤주용	단양공장 관리팀 자재파트	본사 물류관리팀	
	보직부여 (차장)	권정민	본사 해외사업팀	본사 해외사업팀(팀장)	
		정순삼	본사 회계팀	본사 회계팀(팀장)	
		엄종관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공정설계파트(파트장)	단양공장 공정개선팀(공정개선파트장 겸무)	
		김정훈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전기파트	단양공장 설비관리팀 전기파트(파트장)	
2018.12.31	면직	도규문	본사 신사업본부 미얀마사업소장		
		최종천	단양공장 자원관리팀장		

한라시멘트㈜

구분	발령일자	성명	면(직책 및 직급)	명(직책 및 직급)	비고
직원	2019.01.01.	김한수	안전환경보건실 부장	안전보건환경실 안전관리팀장 부장	
		최일규	안전환경보건실 부장	안전보건환경실 환경관리팀장 부장	
		김동욱	자원생산관리실 생산기획팀 부장	자원관리실 생산지원팀 부장	
		유승완	자원생산관리실 생산기획팀 차장	자원관리실 생산지원팀 차장	
		성낙현	안전보건환경실 부장	자원관리실 생산지원팀 부장	
		한성철	안전보건환경실 자원재활용팀 대리	안전보건환경실 자원재활용팀 과장	
		윤종빈	기술실 공정관리팀장 부장	기술실 기술혁신팀장 부장	
		구상서	기술실 공정관리팀 차장	기술실 기술혁신팀 차장	
		박윤기	기술실 공정관리팀 부장	영업본부 기술지원팀 부장	
		이용현	기술실 품질관리팀 과장	기술실 품질관리팀 차장	
		김선진	생산실 생산팀장 부장	생산실장 부장	
		조한석	생산실 항만생산팀 부장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팀 부장	
		황태현	공무실 설비개선팀장 부장	광양 · 포항 · 인천공장 광양 · 인천공장팀 부장	
		정래진	공무실 설비개선팀 부장	기술실 기술혁신팀 부장	
		박종대	공무실 설비개선팀 대리	기술실 기술혁신팀 과장	
		이창수	공무실 설비개선팀 차장	공무실 기계팀 차장	
		김성필	광양 · 포항 · 인천공장 광양 · 인천공장팀 부장	공무실 기계팀 부장	
		임일경	영업본부 중부지사장 부장	영업본부 중앙지사장 부장	
		김권중	영업본부 중앙지사장 부장	영업본부 제주지사장 부장	
		임선빈	영업본부 중앙지사 과장	영업본부 특수영업지사 과장	
		김두일	영업본부 특수영업지사 부장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부장	
		김남호	영업본부 영남지사 부장	기술실 생산기획팀 부장	
		손병길	영업본부 기술지원팀 차장	영업본부 서부지사 부장	
		반주환	영업본부 기술지원팀 과장	영업본부 영남지사 과장	
		장석인	영업본부 유통팀 과장	영업본부 중앙지사 차장	
		정백호	영업본부 유통팀 과장	영업본부 유통팀 차장	
		이미영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대리	영업본부 영업기획팀 과장	
		임길승	경영지원본부 교육홍보팀 부장	자원관리실 생산지원팀장 부장	
		허춘원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팀 부장	생산실 항만생산팀 부장	
		김경회	경영지원본부 구매 · 수출팀 대리	경영지원본부 구매 · 수출팀 과장	
		최갑순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과장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차장	



STATISTICS

- 시멘트 수급총괄 _74
- 클링커 생산실적 _75
- 시멘트 생산실적 _76
- 시멘트 수송실적 _77
- 회사별 · 월별 클링커 수급실적 _78
- 회사별 · 월별 시멘트 수급실적 _79
- 회사별 클링커 · 시멘트 수출실적 _80

시멘트 수급총괄

Cement Supply and Consumption

(단위:톤) (Unit:M/T)

	공급 Supply			수요 Consumption			재고 Stocks
	생산 Production	수입 Import	계 Sub-Total	국내소비 Dome-Consum	수출 Export	계 Sub-Total	
1993	46,893,970	1,118,826	48,012,796	46,681,354	1,492,372	48,173,726	872,131
1994	51,634,555	2,317,788	53,952,343	52,667,983	1,096,791	53,764,774	1,082,950
1995	55,129,583	2,082,377	57,211,960	56,501,765	966,372	57,468,137	860,533
1996	57,260,245	3,605,455	60,865,700	60,012,801	783,745	60,796,546	817,300
1997	59,796,075	2,989,257	62,785,332	61,752,135	622,724	62,374,859	1,223,164
1998	46,091,066	177,719	46,268,785	44,615,093	1,239,404	45,854,497	1,630,349
1999	48,156,548	135,474	48,292,022	44,721,156	3,661,192	48,382,348	1,468,709
2000	51,255,129	517,889	51,773,018	48,000,094	3,945,460	51,945,554	1,296,693
2001	52,046,329	988,514	53,034,843	50,054,852	3,000,974	53,055,826	1,274,521
2002	55,513,831	1,189,119	56,702,950	54,291,800	2,487,722	56,779,522	1,137,333
2003	59,193,796	1,808,936	61,002,732	58,302,257	2,611,805	60,914,062	1,226,436
2004	54,329,760	3,398,228	57,727,988	54,942,318	2,640,659	57,582,977	1,363,371
2005	47,197,201	3,402,978	50,600,179	46,285,524	4,024,393	50,309,917	1,487,465
2006	49,198,785	3,198,322	52,397,107	48,386,021	3,986,937	52,372,958	1,518,522
2007	52,182,351	2,917,193	55,099,544	50,800,755	4,123,224	54,923,979	1,448,306
2008	51,653,418	1,985,460	53,638,878	50,636,800	3,006,074	53,642,874	1,447,279
2009	50,126,341	831,324	50,957,665	48,469,983	2,487,391	50,957,374	1,421,228
2010	47,420,060	772,487	48,192,547	45,493,332	2,761,855	48,255,187	1,362,008
2011	48,249,153	683,400	48,932,553	44,601,372	4,483,671	49,085,043	1,267,687
2012	46,862,240	728,378	47,590,618	43,938,835	3,150,091	47,088,926	1,865,915
2013	47,290,598	760,519	48,051,117	45,173,814	3,552,320	48,726,134	1,041,046
2014	47,047,900	881,681	47,929,581	43,706,915	3,923,389	47,630,304	1,357,236
2015	52,043,695	1,157,505	53,201,200	50,737,202	2,901,889	53,639,091	798,180
2016	56,507,193	1,150,870	57,658,063	55,755,560	1,778,706	57,534,266	1,012,530
2017	57,399,835	854,363	58,254,198	56,710,577	1,137,777	57,848,354	1,440,160
2017.1	4,057,740	69,680	4,127,420	3,414,811	135,074	3,549,885	1,595,435
2	3,583,530	57,735	3,641,265	3,692,517	113,960	3,806,477	1,452,446
3	5,414,225	62,950	5,477,175	5,657,914	110,780	5,768,694	1,161,446
4	5,386,954	76,838	5,463,792	5,226,601	53,053	5,279,654	1,354,953
5	5,555,993	97,300	5,653,293	5,547,419	149,224	5,696,643	1,309,429
6	5,276,999	97,000	5,373,999	5,384,839	113,796	5,498,635	1,193,703
7	4,540,152	83,000	4,623,152	4,095,851	77,430	4,173,281	1,645,272
8	4,051,059	54,750	4,105,809	4,182,759	99,900	4,282,659	1,460,664
9	4,887,826	74,550	4,962,376	5,380,752	97,140	5,477,892	930,289
10	4,604,316	58,000	4,662,316	4,191,710	108,920	4,300,630	1,305,726
11	5,263,989	77,590	5,341,579	5,540,908	39,740	5,580,648	1,055,589
12	4,777,052	44,970	4,822,022	4,394,496	38,760	4,433,256	1,440,160

클링커 생산실적

Clinker Production Actual

(단위:톤) (Unit:M/T)

	삼표 Sampyo	쌍용 SsangYong	한일 Hanil	한일현대 HanilHyundai	아세아 Asia	성신 Sungshin	한라 Halla	고려 Korea	기타	합계 Total
1993	8,854,263	14,021,800	5,197,564	4,456,430	3,642,656	4,120,076	4,510,097	719,734	79,956	45,602,576
1994	8,389,181	14,065,202	5,278,720	6,136,754	3,693,193	5,432,580	4,622,800	739,196	1,200,202	49,557,828
1995	9,373,625	14,062,843	5,383,395	6,485,260	3,672,840	6,114,975	4,658,797	740,166	1,401,920	51,893,821
1996	9,261,303	14,096,897	5,754,018	6,624,557	3,605,637	6,224,155	4,983,070	557,040	1,165,034	52,271,711
1997	9,334,078	14,349,923	6,425,469	6,808,233	3,732,712	6,390,568	5,143,221	770,339	1,169,327	54,123,870
1998	7,156,249	11,393,156	4,507,717	4,943,723	2,758,864	5,753,251	4,962,424	767,659		42,243,043
1999	7,884,537	11,818,563	4,364,646	4,619,051	2,796,555	6,013,258	5,063,479	787,340	441,963	43,789,392
2000	7,694,523	12,285,855	4,462,657	4,808,914	2,831,444	6,649,135	4,947,470	693,309	1,345,422	45,718,729
2001	8,083,333	12,933,466	4,666,479	4,982,713	2,902,530	6,717,104	5,161,562	693,655	1,252,473	47,393,315
2002	8,816,066	12,809,971	5,174,964	5,426,514	3,323,417	7,402,031	5,987,700	728,661	378,782	50,048,106
2003	9,026,917	13,230,748	5,187,267	5,615,082	3,250,604	7,697,103	6,837,642	729,418		51,574,781
2004	8,201,042	12,963,748	5,204,236	5,107,486	3,114,531	6,641,225	6,306,086	712,786		48,251,140
2005	7,380,622	12,331,589	4,243,768	4,541,492	2,899,787	5,547,548	5,468,938	657,225		43,070,969
2006	7,770,749	12,219,485	4,105,587	4,325,252	2,275,993	5,575,540	5,795,626	655,028		42,723,260
2007	7,802,647	13,159,456	5,007,789	4,720,123	2,978,464	6,071,070	5,976,946	576,745		46,293,240
2008	7,728,408	13,085,967	5,194,537	5,054,251	2,859,447	6,073,404	6,052,223	746,578		46,794,815
2009	7,083,748	12,814,647	5,225,404	4,622,700	2,835,225	5,659,142	5,821,284	712,239		44,774,389
2010	7,360,206	12,797,728	5,880,253	4,078,782	2,994,118	5,088,931	5,983,000	670,077		44,853,095
2011	8,147,129	13,363,986	5,464,141	3,924,863	2,834,490	4,833,045	6,057,813	655,337		45,280,804
2012	8,425,171	13,337,747	5,267,209	4,231,469	2,802,217	5,380,737	5,059,944	650,493		45,154,987
2013	8,050,020	12,777,335	5,282,544	4,131,380	2,815,988	5,618,029	5,001,501	705,470		44,382,267
2014	7,767,485	12,866,230	5,423,853	4,086,321	2,900,923	5,169,759	5,910,316	691,049		44,815,936
2015	7,429,229	13,271,386	5,483,845	4,370,085	3,107,503	6,759,166	5,907,410	686,637		47,015,261
2016	8,014,280	13,402,783	6,275,710	4,793,525	3,453,870	6,674,557	5,828,259	704,702		49,147,686
2017	8,368,293	12,801,029	6,275,118	4,245,513	3,697,568	6,296,440	6,274,739	698,726		48,657,426
2017.1	647,741	1,035,581	604,779	253,750	247,775	559,428	449,664	44,982		3,843,700
2	570,115	961,403	396,741	170,075	223,528	334,743	425,915	33,631		3,116,151
3	773,872	1,099,628	559,405	470,928	344,755	541,093	529,164	65,700		4,384,545
4	734,729	1,080,110	500,609	473,093	337,173	606,120	531,638	63,757		4,327,229
5	770,961	1,190,914	565,963	452,719	351,407	687,253	592,913	64,584		4,676,714
6	736,863	1,155,961	573,733	327,926	340,681	515,422	571,972	65,010		4,287,568
7	735,447	1,126,255	573,505	334,150	336,033	504,958	542,292	55,479		4,208,119
8	565,581	1,089,547	464,313	229,987	284,048	431,849	508,239	65,884		3,639,448
9	654,158	784,009	470,556	370,856	257,148	442,968	477,693	59,409		3,516,797
10	688,636	1,198,565	551,593	350,975	347,132	577,630	587,136	63,641		4,365,308
11	716,250	1,216,933	545,780	370,307	334,739	585,741	568,597	53,097		4,391,444
12	773,940	862,123	468,141	440,747	293,149	509,235	489,516	63,552		3,900,403

주) 기타는 홍성

고려 – 2013년 이전 실적은 유진고려

시멘트 생산실적

Cement Production, Actual

(단위:톤) (Unit:M/T)

	삼표 Sampyo	쌍용 SsangYong	한일 Hanil	한일현대 HanilHyundai	아세아 Asia	성신 Sungshin	한라 Halla	한국 Hankook	고려 Korea	대한1 Daehan1	대한2 Daehan2	합계 Total
1993	8,368,240	13,657,364	5,289,542	4,856,550	3,926,348	4,438,881	3,877,875	850,368	1,537,431		91,371	46,893,970
1994	8,680,191	14,217,018	5,580,322	6,431,030	3,990,258	5,554,677	3,730,783	956,635	1,589,397		904,244	51,634,555
1995	10,224,667	14,768,841	5,683,045	6,920,522	4,035,085	6,490,936	3,953,690	936,281	1,695,283		421,233	55,129,583
1996	10,515,220	14,277,638	6,365,877	7,149,558	4,015,795	6,730,637	4,841,698	1,200,515	1,694,074		469,233	57,260,245
1997	10,696,509	14,653,738	7,080,748	7,327,020	4,044,522	7,208,149	5,166,428	1,127,892	1,761,734		729,335	59,796,075
1998	7,695,866	11,062,271	4,933,955	5,286,646	3,008,872	6,164,934	4,751,237	863,680	1,444,690		878,915	46,091,066
1999	8,455,412	11,937,445	4,711,963	4,961,334	2,949,665	6,506,963	4,720,022	1,123,652	1,697,217		1,092,875	48,156,548
2000	8,398,685	13,096,127	4,997,292	5,216,012	3,065,446	7,091,739	5,179,985	1,459,481	1,906,655		843,707	51,255,129
2001	8,604,261	12,426,779	5,094,425	5,403,699	3,171,038	7,233,050	5,451,905	1,653,321	2,159,881		847,970	52,046,329
2002	9,152,642	12,862,419	5,601,993	5,905,915	3,480,062	8,026,714	5,552,328	1,728,866	2,208,007		994,885	55,513,831
2003	9,853,309	14,033,316	5,933,681	6,051,896	3,545,432	8,599,039	5,982,014	1,876,550	2,246,330		1,072,229	59,193,796
2004	8,907,408	13,028,176	5,674,002	5,515,316	3,340,688	7,348,511	5,510,815	2,151,419	1,889,534		963,891	54,329,760
2005	7,227,462	11,884,121	4,374,200	4,793,790	2,859,239	6,081,055	6,221,656	1,609,620	1,423,758		722,300	47,197,201
2006	7,729,789	12,444,386	4,858,865	4,729,363	2,759,409	6,196,332	6,874,593	1,500,078	1,374,521		731,449	49,198,785
2007	8,264,604	12,698,920	5,608,250	5,142,941	3,079,916	6,694,436	6,885,930	1,449,063	1,508,826		849,465	52,182,351
2008	7,808,040	12,502,693	5,716,006	5,387,284	3,075,186	6,857,859	6,348,685	1,555,974	1,728,729		672,962	51,653,418
2009	7,608,961	11,996,807	5,737,967	4,948,551	3,100,796	6,216,866	6,935,274	1,462,427	1,596,403		522,289	50,126,341
2010	7,167,863	11,140,445	6,394,287	4,452,571	3,247,961	5,749,339	6,148,131	1,129,323	1,586,538		403,602	47,420,060
2011	7,977,244	11,198,039	6,019,513	4,327,949	3,116,739	5,293,700	6,683,536	1,397,099	1,784,316		451,018	48,249,153
2012	7,402,666	11,031,551	5,544,426	4,525,526	3,021,303	6,073,470	5,560,807	1,527,448	1,589,462		585,581	46,862,240
2013	6,954,647	10,942,765	5,837,799	4,495,531	3,045,497	6,275,430	5,844,585	1,549,675	1,124,639	561,167	658,863	47,290,598
2014	6,953,322	10,927,452	5,927,476	4,356,936	3,242,378	5,857,614	6,112,140	1,531,329	1,017,977	510,566	610,710	47,047,900
2015	7,143,681	11,930,683	6,219,483	4,912,602	3,645,103	7,629,792	6,168,426	1,844,069	1,119,842	690,380	739,634	52,043,695
2016	8,231,343	12,702,601	7,121,865	5,309,531	4,041,665	7,837,138	6,757,855	1,696,241	1,240,966	899,395	668,593	56,507,193
2017	9,609,321	12,944,909	6,965,828	4,825,938	4,217,116	7,221,888	7,124,782	1,948,144	1,165,053	743,306	633,550	57,399,835
2017.1	724,884	1,025,546	489,210	279,256	263,016	484,669	536,863	98,183	68,218	49,402	38,493	4,057,740
2	621,599	799,345	480,976	261,843	245,659	428,520	477,478	121,628	64,236	43,805	38,441	3,583,530
3	882,801	1,194,307	647,879	476,777	417,144	715,215	639,569	196,371	106,814	72,245	65,103	5,414,225
4	870,799	1,216,086	677,418	503,219	390,858	696,011	633,333	153,271	111,953	72,750	61,256	5,386,954
5	918,700	1,247,850	675,710	487,445	407,783	704,426	679,048	184,743	116,547	71,862	61,879	5,555,993
6	876,606	1,154,870	644,455	414,517	406,813	648,646	660,088	212,739	107,121	79,604	71,540	5,276,999
7	826,576	1,029,389	514,645	346,509	319,872	555,247	593,368	153,514	79,685	65,526	55,821	4,540,152
8	633,515	978,949	474,883	311,132	299,048	501,634	529,822	145,056	83,014	51,847	42,159	4,051,059
9	777,774	1,002,717	620,378	437,491	394,387	679,999	593,359	153,114	115,093	63,130	50,384	4,887,826
10	750,782	1,075,279	557,304	407,882	350,240	576,480	537,661	159,149	96,192	49,362	43,985	4,604,316
11	820,943	1,155,009	659,208	470,735	409,057	669,425	650,287	190,976	115,462	66,777	56,110	5,263,989
12	904,342	1,065,562	523,762	429,132	313,239	561,616	593,906	179,400	100,718	56,996	48,379	4,777,052

주) 고려 – 2013년 이전 실적은 유진고려
2013년 1월부터 유진고려 장성공장 → 고려시멘트로 변경
대한1은 舊 한남시멘트(2017년 합병), 대한2는 기존 대한시멘트

시멘트 수송실적

Cement Transportation, Actual

(단위:톤) (Unit:M/T)

	철도편 By Rail			자동차편 By Truck	선박편 By Vessel	계 Total
	수량 Quantities	화차수(량) Number of Freight Car	일평균(량) Daily Averages			
1993	18,442,687	338,037	926	16,971,174	15,289,846	50,703,707
1994	18,264,275	240,406	659	20,239,850	17,718,577	56,222,702
1995	18,475,785	360,296	987	21,321,752	19,361,846	59,159,383
1996	18,002,996	360,060	986	22,373,596	19,069,110	59,445,702
1997	19,323,209	386,464	1,059	22,143,871	19,398,335	60,865,415
1998	15,485,119	309,702	848	14,654,589	17,473,129	47,612,837
1999	15,636,682	312,734	857	15,233,418	19,189,484	50,059,584
2000	16,518,830	330,377	905	17,066,945	20,235,029	53,820,804
2001	17,353,549	347,071	951	17,873,861	21,097,535	56,324,945
2002	18,397,966	367,959	1,008	19,605,097	20,392,703	58,395,766
2003	19,093,658	381,873	1,046	20,515,393	20,488,452	60,097,503
2004	17,465,148	349,303	957	19,574,746	19,593,122	56,633,016
2005	14,741,045	294,821	808	15,361,252	18,873,458	48,975,755
2006	15,182,481	303,650	832	15,493,668	20,361,298	51,037,447
2007	16,048,415	320,968	879	17,289,426	20,968,064	54,305,905
2008	17,160,451	343,209	940	15,699,321	21,366,228	54,226,000
2009	15,806,714	316,134	866	14,615,778	20,587,617	51,010,109
2010	14,596,126	291,923	800	14,240,370	21,765,464	50,601,960
2011	14,486,998	289,740	794	13,808,801	23,595,835	51,891,634
2012	14,409,414	288,188	790	13,672,098	22,281,744	50,363,256
2013	14,753,740	295,075	808	14,534,295	21,726,434	51,014,469
2014	14,038,726	280,775	769	14,788,093	22,268,432	51,095,251
2015	14,747,020	294,940	808	18,967,389	21,344,370	55,058,779
2016	13,473,708	269,474	738	23,158,647	20,964,332	57,596,687
2017	13,237,901	264,758	725	22,564,494	21,909,757	57,712,152
2017.1	824,707	16,494	45	1,354,185	1,774,313	3,953,205
2	932,808	18,656	51	1,348,110	1,675,377	3,956,295
3	1,279,924	25,598	70	2,206,887	2,080,439	5,567,250
4	1,290,468	25,809	71	2,208,493	1,829,822	5,328,783
5	1,277,845	25,557	70	2,185,803	1,980,255	5,443,903
6	1,170,056	23,401	64	2,167,674	1,971,070	5,308,800
7	981,636	19,633	54	1,648,991	1,725,157	4,355,784
8	946,485	18,930	52	1,687,139	1,566,772	4,200,396
9	1,207,678	24,154	66	2,023,922	1,780,646	5,012,246
10	1,036,454	20,729	57	1,708,877	1,819,058	4,564,389
11	1,268,505	25,370	70	2,270,906	1,948,900	5,488,311
12	1,021,335	20,427	56	1,753,507	1,757,948	4,532,790

주: 1) 출하기준, 2) 클링커는 수출제외

회사별·월별 클링커 수급실적

Clinker Production, Grinding, Export, Stock

(단위:톤) (Unit:M/T)

		삼표 Sampyo	쌍용 SsangYong	한일 Hanil	한일현대 HanilHyundai	아세아 Asia	성신 Sungshin	한라 Halla	한국 Hankook C&T	고려 Korea	합계 Total
2017.1	생산	647,741	1,035,581	604,779	253,750	247,775	559,428	449,664		44,982	3,843,700
	분쇄	606,683	881,339	432,697	246,150	228,866	416,340	415,818	37,378	42,466	3,307,737
	수출	95,700	71,500					38,500			205,700
	재고	142,907	712,315	314,561	117,458	70,639	227,807	122,473	24,788	11,078	1,744,026
2	생산	570,115	961,403	396,741	170,075	223,528	334,743	425,915		33,631	3,116,151
	분쇄	515,250	686,215	422,677	228,199	211,954	367,250	367,133	45,956	38,525	2,883,159
	수출	48,920	245,715					44,000			338,635
	재고	145,378	696,569	288,625	59,334	82,213	195,300	137,255	27,524	6,184	1,638,382
3	생산	773,872	1,099,628	559,405	470,928	344,755	541,093	529,164		65,700	4,384,545
	분쇄	725,769	1,028,297	565,073	409,986	361,655	609,731	494,478	74,819	65,320	4,335,128
	수출		124,000					83,740			207,740
	재고	175,432	588,082	282,957	120,276	65,313	126,662	88,201	26,570	6,564	1,480,057
4	생산	734,729	1,080,110	500,609	473,093	337,173	606,120	531,638		63,757	4,327,229
	분쇄	733,278	1,051,117	585,524	434,874	336,773	590,782	468,440	69,128	66,889	4,336,805
	수출		99,500					38,500			138,000
	재고	157,914	463,801	198,042	158,495	65,713	142,000	112,899	30,184	3,432	1,332,480
5	생산	770,961	1,190,914	565,963	452,719	351,407	687,253	592,913		64,584	4,676,714
	분쇄	767,732	1,072,940	575,403	421,803	353,353	597,998	502,495	87,947	66,918	4,446,589
	수출		44,000					31,950			75,950
	재고	145,414	473,272	188,602	189,411	63,767	231,255	171,367	22,467	1,098	1,486,653
6	생산	736,863	1,155,961	573,733	327,926	340,681	515,422	571,972		65,010	4,287,568
	분쇄	719,985	982,938	551,528	359,781	349,098	555,833	503,023	98,932	62,261	4,183,379
	수출		94,000					82,500			176,500
	재고	213,000	396,074	210,807	157,556	55,350	190,844	157,816	29,048	3,847	1,414,342
7	생산	735,447	1,126,255	573,505	334,150	336,033	504,958	542,292		55,479	4,208,119
	분쇄	686,018	896,657	439,047	303,527	276,479	472,488	444,982	66,673	47,668	3,633,539
	수출		93,500					83,920			177,420
	재고	247,796	480,748	345,265	188,179	114,904	223,314	171,206	28,433	11,658	1,811,503
8	생산	565,581	1,089,547	464,313	229,987	284,048	431,849	508,239		65,884	3,639,448
	분쇄	517,310	848,367	420,681	268,005	259,198	427,875	399,046	63,439	45,318	3,249,239
	수출		82,500					49,890			132,390
	재고	277,294	609,496	388,897	150,161	139,754	227,288	230,509	41,901	32,224	2,097,524
9	생산	654,158	784,009	470,556	370,856	257,148	442,968	477,693		59,409	3,516,797
	분쇄	645,114	864,701	552,352	375,379	341,406	579,880	454,455	67,357	66,871	3,947,515
	수출		98,900					82,160			181,060
	재고	251,947	393,937	307,101	145,638	55,496	90,376	171,587	44,902	24,762	1,485,746
10	생산	688,636	1,198,565	551,593	350,975	347,132	577,630	587,136		63,641	4,365,308
	분쇄	626,674	931,412	490,377	350,212	303,343	487,188	412,490	59,644	64,796	3,726,136
	수출		170,136					137,870			308,006
	재고	273,154	477,117	368,317	146,401	99,285	180,818	208,363	39,851	23,607	1,816,913
11	생산	716,250	1,216,933	545,780	370,307	334,739	585,741	568,597		53,097	4,391,444
	분쇄	683,212	987,402	587,163	406,523	352,147	567,248	500,324	71,611	76,704	4,232,334
	수출		175,460					42,745			218,205
	재고	262,657	512,541	326,934	110,185	81,877	199,311	233,891	49,423		1,776,819
12	생산	773,940	862,123	468,141	440,747	293,149	509,235	489,516		63,552	3,900,403
	분쇄	757,515	917,286	465,434	368,369	269,520	475,998	462,320	72,936	63,006	3,852,384
	수출							91,470			91,470
	재고	266,128	415,414	329,641	182,563	105,506	232,548	169,617	57,406	546	1,759,369

회사별·월별 시멘트 수급실적

Cement Production, Domestic consumption, Export, Stock

(단위:톤) (Unit:M/T)

		삼표 Sampyo	쌍용 SsangYong	한일 Hanil	한일현대 HanilHyundai	아세아 Asia	성신 Sungshin	한라 Halla	한국 Hankook	고려 Korea	대한1 Daehan1	대한2 Daehan2	기타	합계 Total
2017.1	생산	724,884	1,025,546	489,210	279,256	263,016	484,669	536,863	98,183	68,218	49,402	38,493		4,057,740
	내수	581,397	710,875	393,411	268,101	224,712	447,690	440,109	102,915	68,224	88,132	69,595	19,650	3,414,811
	수출	25,800	108,560	714										135,074
	재고	316,902	389,988	184,773	122,199	86,127	127,695	254,690	43,586	13,498	34,523	21,454		1,595,435
2	생산	621,599	799,345	480,976	261,843	245,659	428,520	477,478	121,628	64,236	43,805	38,441		3,583,530
	내수	628,253	747,143	468,218	295,179	270,690	438,276	472,479	122,440	65,839	88,237	73,428	22,335	3,692,517
	수출	25,000	87,800	1,160										113,960
	재고	285,429	332,232	177,051	95,971	59,337	125,544	253,092	42,774	11,895	48,778	20,343		1,452,446
3	생산	882,801	1,194,307	647,879	476,777	417,144	715,215	639,569	196,371	106,814	72,245	65,103		5,414,225
	내수	945,818	1,113,137	718,709	493,805	422,924	706,482	687,539	192,512	107,013	140,133	114,892	14,950	5,657,914
	수출	26,000	84,000	780										110,780
	재고	203,532	262,635	121,868	73,561	57,598	127,298	197,878	46,633	11,696	39,817	18,930		1,161,446
4	생산	870,799	1,216,086	677,418	503,219	390,858	696,011	633,333	153,271	111,953	72,750	61,256		5,386,954
	내수	817,783	1,034,727	645,096	470,753	382,580	690,419	632,153	161,401	112,787	137,354	110,110	31,438	5,226,601
	수출	22,000	30,245	808										53,053
	재고	247,530	351,321	145,612	105,465	72,838	128,508	193,773	38,503	10,862	42,252	18,289		962,546
5	생산	918,700	1,247,850	675,710	487,445	407,783	704,426	679,048	184,743	116,547	71,862	61,879		5,555,993
	내수	884,963	1,103,838	663,485	472,050	415,904	707,382	695,915	185,992	122,381	146,285	117,924	31,300	5,547,419
	수출	25,000	123,684	540										149,224
	재고	239,952	313,782	164,966	121,953	66,066	136,300	172,745	37,254	13,028	32,955	10,428		1,309,429
6	생산	876,606	1,154,870	644,455	414,517	406,813	648,646	660,088	212,739	107,121	79,604	71,540		5,276,999
	내수	871,093	1,083,949	643,946	430,281	402,820	675,699	643,476	204,774	113,587	155,625	124,589	35,000	5,384,839
	수출	24,200	88,300	1,296										113,796
	재고	210,930	245,049	153,439	115,358	76,008	120,878	182,203	45,219	10,562	20,408	13,649		1,193,703
7	생산	826,576	1,029,389	514,645	346,509	319,872	555,247	593,368	153,514	79,685	65,526	55,821		4,540,152
	내수	678,233	808,760	490,955	305,291	302,635	512,547	513,687	165,802	79,279	117,320	87,742	33,600	4,095,851
	수출	22,400	54,390	640										77,430
	재고	349,745	351,634	175,972	144,935	94,466	155,222	265,490	32,931	14,968	34,702	25,207		1,645,272
8	생산	633,515	978,949	474,883	311,132	299,048	501,634	529,822	145,056	83,014	51,847	42,159		4,051,059
	내수	704,570	818,924	511,821	320,619	313,586	535,649	544,366	134,845	90,528	114,310	80,591	12,950	4,182,759
	수출	15,000	84,300	600										99,900
	재고	274,465	369,537	141,780	120,999	79,928	114,776	251,541	43,142	11,454	35,274	17,768		1,460,664
9	생산	777,774	1,002,717	620,378	437,491	394,387	679,999	593,359	153,114	115,093	63,130	50,384		4,887,826
	내수	901,328	1,021,890	675,067	466,307	425,934	697,346	653,701	161,314	119,841	129,735	94,139	34,150	5,380,752
	수출	17,000	80,140											97,140
	재고	144,314	189,224	106,317	91,251	48,381	84,009	181,191	34,942	11,706	22,514	16,440		930,289
10	생산	750,782	1,075,279	557,304	407,882	350,240	576,480	537,661	159,149	96,192	49,362	43,985		4,604,316
	내수	691,517	817,290	522,696	374,043	319,065	526,460	498,121	153,044	92,865	97,326	71,483	27,800	4,191,710
	수출	8,300	100,530	90										108,920
	재고	209,473	293,928	133,143	120,239	78,516	126,271	222,696	41,047	15,033	43,180	22,200		1,305,726
11	생산	820,943	1,155,009	659,208	470,735	409,057	669,425	650,287	190,976	115,462	66,777	56,110		5,263,989
	내수	897,677	1,122,363	674,299	501,061	400,130	671,563	654,736	204,561	132,632	140,152	104,544	37,190	5,540,908
	수출	8,000	31,740											39,740
	재고	130,326	226,467	123,425	90,933	87,443	117,728	202,839	27,462	7,863	24,373	16,730		938,167
12	생산	904,342	1,065,562	523,762	429,132	313,239	561,616	593,906	179,400	100,718	56,996	48,379		4,777,052
	내수	732,056	890,470	528,660	375,827	308,684	556,819	537,301	159,453	101,189	116,828	80,039	7,170	4,394,496
	수출	8,000	25,460	300			5,000							38,760
	재고	274,018	292,606	124,476	146,862	91,998	134,189	253,477	47,409	12,392	39,419	23,314		1,440,160

주) 대한1은 舊 한남시멘트(2017년 합병), 대한2는 기존 대한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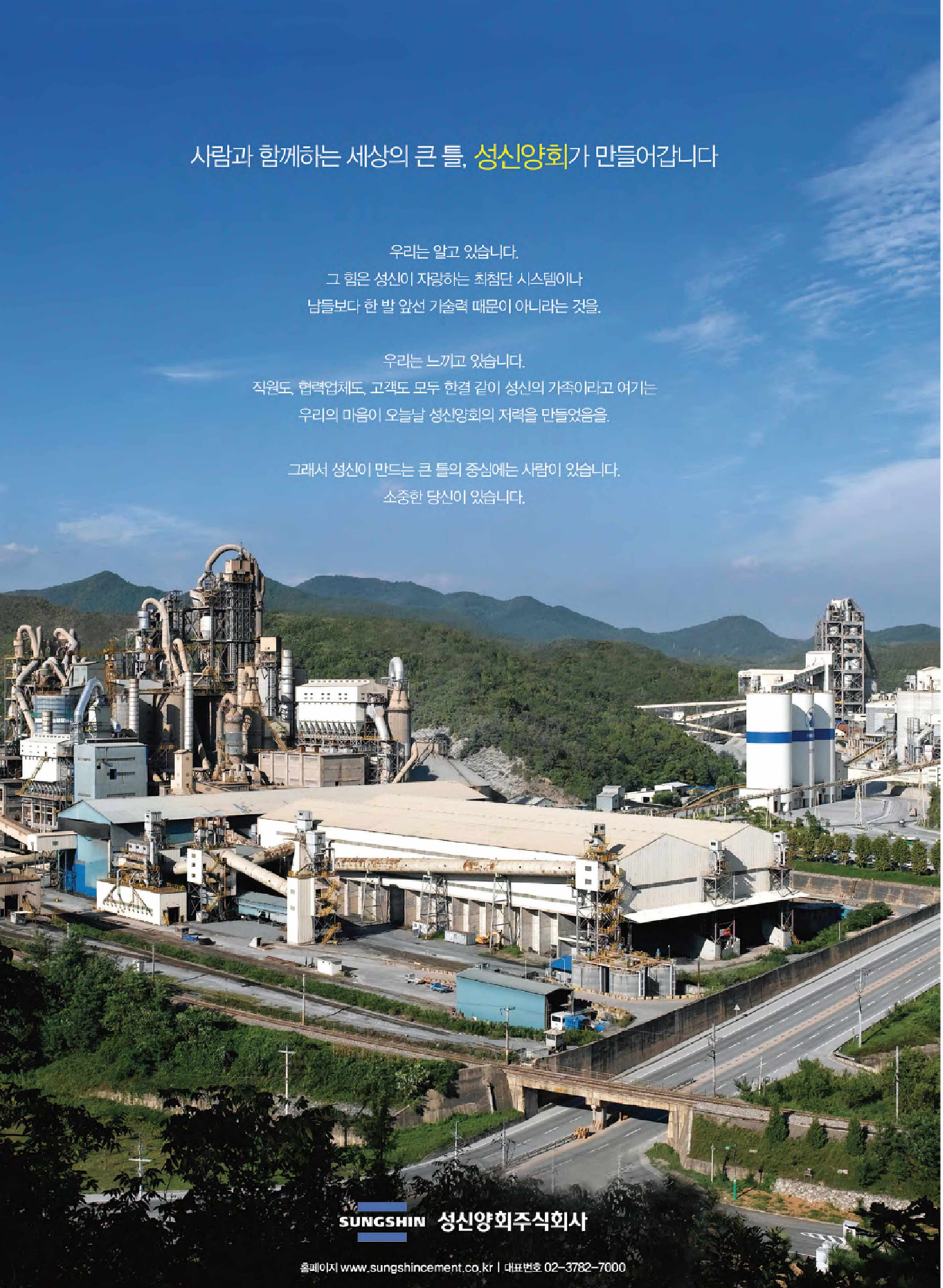
회사별 클링커·시멘트 수출실적

Cement and Clinker Export by Company

(단위:톤) (Unit:M/T)

	삼표 Sampyo	쌍용 SsangYong	한일 Hanil	한일현대 HanilHyundai	아세아 Asia	성신 Sungshin	한라 Halla	고려 Korea	합계 Total
2002	1,402,091	1,072,401	7,258				5,972		2,487,722
	150,710	561,009					193,801		905,520
2003	1,327,306	1,271,688	5,506				7,305		2,611,805
	33,000	383,043					118,658		534,701
2004	1,139,633	1,454,330	6,340				40,356		2,640,659
	139,400	846,909					433,700		1,420,009
2005	1,203,982	2,550,921	10,980				258,510		4,024,393
	694,316	1,114,812					136,251		1,945,379
2006	1,239,165	2,632,542	12,300				102,930		3,986,937
	904,337	1,037,288					268,445		2,210,070
2007	1,404,087	2,281,273	11,828				426,036		4,123,224
	617,565	1,284,537					316,390		2,218,492
2008	794,230	2,051,039	10,776				150,029		3,006,074
	876,178	1,548,208					1,069,937		3,494,323
2009	648,760	1,323,875	10,310				504,446		2,487,391
	267,377	1,619,277					198,367		2,085,021
2010	879,620	1,328,815	11,796				541,624		2,761,855
	1,087,857	2,671,885					1,002,167		4,761,909
2011	1,528,390	1,881,153	10,212				1,063,916		4,483,671
	1,206,577	3,150,673				168,460	955,459		5,481,169
2012	1,421,437	1,450,848	10,464			60,120	207,222		3,150,091
	1,938,392	2,812,478				207,550	774,760		5,733,180
2013	1,456,111	1,631,888	11,450			137,699	315,172		3,552,320
	1,823,359	2,982,098		44,750		93,200	552,927		5,496,334
2014	1,275,480	1,935,325	13,306			131,054	568,224		3,923,389
	1,442,431	2,782,318				95,010	1,282,114		5,601,873
2015	636,300	1,859,993	12,835			51,361	341,400		2,901,889
	1,056,277	2,299,638					1,090,670		4,446,585
2016	280,000	1,471,553	14,072			13,001			1,778,626
	877,420	1,879,600					506,879		3,263,899
2017	226,700	899,149	6,928			5,000			1,137,777
	144,620	1,299,211					807,245		2,251,076
2017.1	25,800	108,560	714						135,074
	95,700	71,500					38,500		205,700
2	25,000	87,800	1,160						113,960
	48,920	245,715					44,000		338,635
3	26,000	84,000	780						110,780
		124,000					83,740		207,740
4	22,000	30,245	808						53,053
		99,500					38,500		138,000
5	25,000	123,684	540						149,224
		44,000					31,950		75,950
6	24,200	88,300	1,296						113,796
		94,000					82,500		176,500
7	22,400	54,390	640						77,430
		93,500					85,950		179,450
8	15,000	84,300	600						99,900
		82,500					47,860		130,360
9	17,000	80,140							97,140
		98,900					82,160		181,060
10	8,300	100,530	90						108,920
		170,136					137,870		308,006
11	8,000	31,740							39,740
		175,460					42,745		218,205
12	8,000	25,460	300			5,000			38,760
							91,470		91,470

※ 아래 숫자는 클링커 수량


사람과 함께하는 세상의 큰 틀, 성신양회가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은 성신이 자랑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나
남들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도, 협력업체도, 고객도 모두 한결 같이 성신의 가족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날 성신양회의 저력을 만들었음을.
그래서 성신이 만드는 큰 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중한 당신이 있습니다.
SUNGSHIN 성신양회주식회사
홈페이지 www.sungshincement.co.kr | 대표번호 02-3782-7000

HALLA CEMENT
| 항만공장 전경 |

아세아시멘트
| 제천공장 전경 |

새로운 가치로 명품을 만들어갑니다!

아세아와 한라가 미래를 향해 함께 걷겠습니다.

시멘트 산업을 이끌어온 아세아시멘트와 한라시멘트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트튼함과 편리함으로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고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NO.1을 향하여 아세아와 한라가 함께하겠습니다.

asia 아세아시멘트 HALLA CEMENT